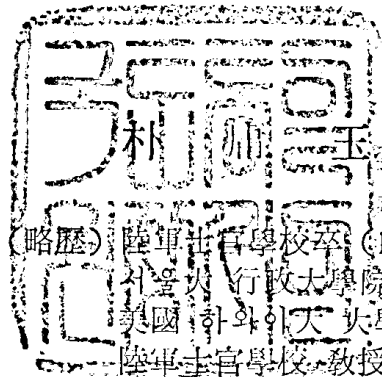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南北韓關係

國際政治情勢와 南北韓 關係間의
相互作用 Model 研究

研究執筆責任



(略歷) 陸軍士官學校卒 (1965)
서울 行政大學院卒 (1971)
美國 하와이 大學院卒 政治學博士 (1975)
陸軍士官學校 教授 (1975~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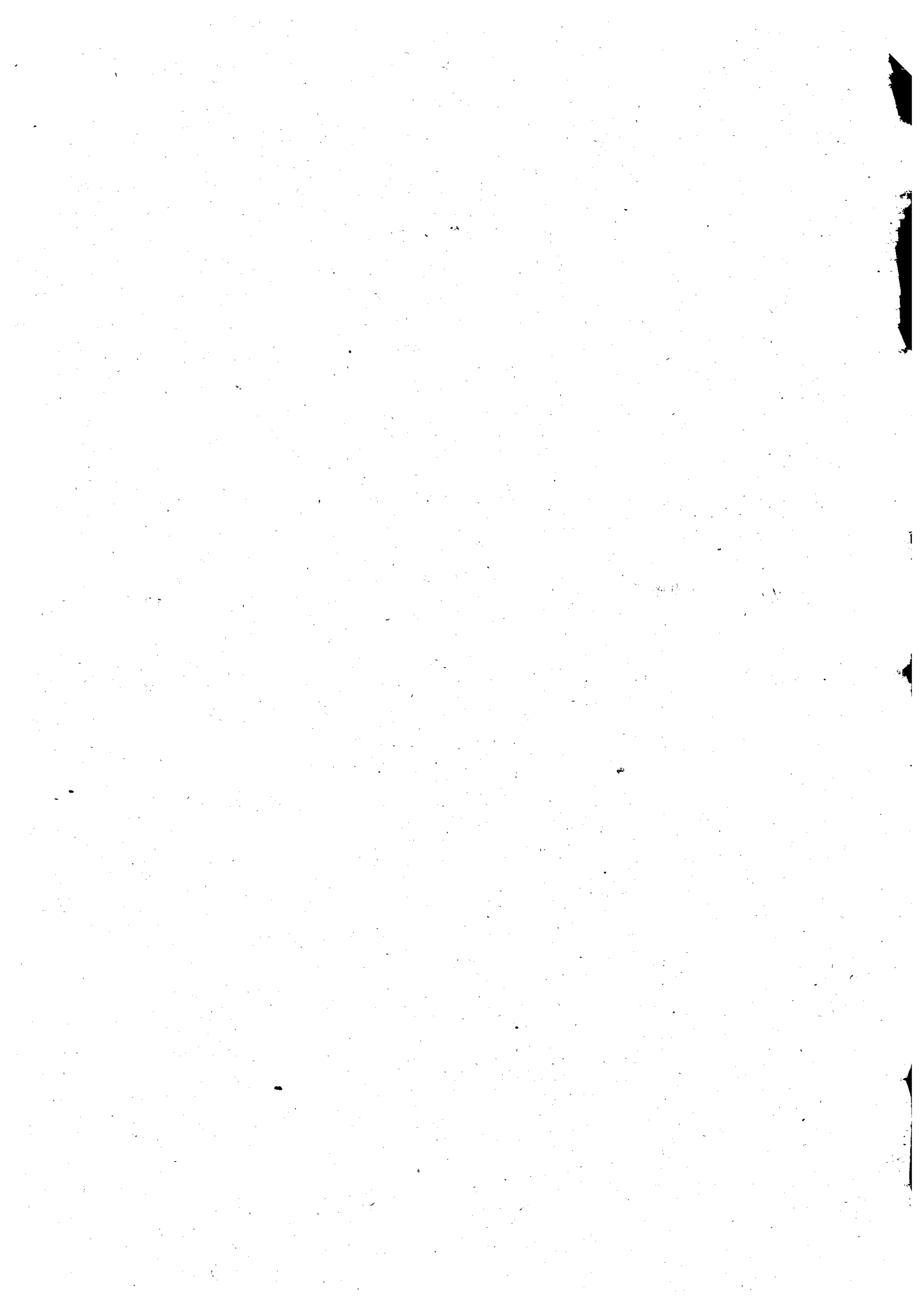
刊行責任

尹 東 鉉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I. 序 言	1
II. 國際政治構造와 弱小國	7
III. 東北亞 政治構造와 韓半島	27
IV. 南北韓關係模型	42
V. 要約 및 結言	62



I . 序 言

1. 研 究 意 義

國際關係理論의 歷史는 傳統的으로 強大國間의 關係만을 中心으로하여 發展하여 왔으며, 弱小國의 國際 政治的 地位나 그들間의 關係는 거의 無視되어 왔다. 오늘날의 國際關係理論에서도 弱小國問題는 強大國들의 利益 및 그들간의 關係에 따라 左右되는 從屬變數 (dependent variables)로 보는 경향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실적인 國際政治構造面에 있어서나 이론적인 概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代表的인 예로서 UN 安保理의 常任理事國에 부여된 拒否權 (Veto Power) 이라든가, 또는 國際政治理論에서 사용되고 있는 勢力均衡體制, 兩極體制, 多極體制 등의 概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第一, 二次世界大戰을 거치는 동안에 弱小國의 國際政治的 地位는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특히 第二次大戰後에 나타난 수 많은 獨立弱小國들의 登場은 몇몇 強大國들 간의 關係로 구성되어온 國際政治構造를 質적으로 變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強大國들의 弱小國에 대한 統制力을 상당히 低下시켰던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弱小國들이 내세우고 있는 非同盟主義 (non-alignment) 는 그들 자신의 意思에 따라 主張되고 있다는 點에서 傳統的 意味의 中立主義 (neutrality) 와 区分되는 것이며,

또한 弱小國의 “對外政策이란 다른 手段에 의하여 追求되고 있는 國內政策의 연속이며, 그 國家의 領土를 넘어서 遂行되고 있는 國內政策이다”.¹⁾ 라는 말도 오늘날의 弱小國들의 현저히 향상된 國際政治的地位 및 獨自性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弱小國들의 國際政治的地位가 향상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對外政策 또는 그들간의 關係가 強大國을 中心으로한 주변 國際情勢와 전혀 無關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國際政治도 強大國中心인 것은 사실이지만, 強大國간의 關係가 자동적으로 弱小國간의 關係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南北韓關係가 사실상 強大國中心의 주변 國際情勢에 一方的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또는 相互依存의 關係에 있는지, 또는 一方的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問題는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2. 研究目的 및 方法

韓半島上에서의 南北關係가 실제로 周辺地域政治構造 (regional Political structure) 또는 世界政治構造 (global political structure)의 變化에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둘 사이에서 어떤 相互作用關係를 찾아 볼 수 있는가? 이 問題는 두가지

1) Robert C. Good, "Changing Patterns of African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VIII (Sept., 1964), p. 638.

측면에서 分析될 수 있다. 하나는「經濟的 分析」이며, 다른 하나는 「論理的 分析」인 것이다. 經驗的 分析이란 過去에서 부터 오늘날까지 變化하여 온 南北韓關係의 성격과 同期間 동안에 變化하여 온 地域的 또는 世界的 國際政治의 構造的 性格을 실제의 經驗的 事實(empirical facts)에 依拠하여 比較하여 봄으로써 단순히 그들간의 「對應關係」(correspondence) 또는 「結合關係」(association)만을 分析하는 것이지, 그들간의 「因果關係」(causation)에 대한 分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行態主義的」(behavioralistic)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 오늘날의 수 많은 經驗的 分析은 두 現象간의 相互對應 및 結合關係를 相互因果關係와 흔히 同一視하는 경향이 있다.

두 現象간의 相互因果關係는 經驗主義的(empiristic) 또는 行態主義的 分析만으로서 는 규명될 수 없으므로 어떤 다른 分析手段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다른 分析手段이란 일종의 論理的 分析을 의미한다. 즉, 因果關係에 對한 論理的 假定을 전제로 하여 주어진 條件 또는 狀況下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現象을 分析하던가 상황의 變化에 따른 結果를 豫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因果關係에 대한 論理的 假定이란 바로 어떤 現象을 설명하기 위한 模型(model)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論理的 假定이란 研究者의 独自の인 主觀 또는 直觀에만

의존하여 설정될 수는 없으며 현실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經驗的 事實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經驗的 分析과 論理的 分析은 相互独立的인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的인 關係에 있는 것이다.

‘國際政治속의 韓半島’ 또는 ‘國際政治와 南北韓關係’라는 표현은 이미 이 두 현상간의 相互依存的 關係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 두 현상이 실제로 相互對應關係下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고 둘째로 만일 相互對應關係에 있다는 것이 經驗的으로 判明된다면 어떤 形態의 關係인가 하는 것을 고찰하며 셋째로, 相互對應關係의 형태가 규명된 후에는 어떤 論理的 가정 또는 狀況的 論理 (logic of situation) 를 설정함으로써 두 현상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國際政治와 南北關係가 相互依存關係에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여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관계의 의존여부부터 檢討하려는 것이다.²⁾

2) 모든 國家의 對外的 行爲를 주위 환경에 適応하거나 또는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看做할때, 國際政治와 南北韓關係는 相互依存關係에 있다고 前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相互依存關係를 미리 前提하지 않는 것은, 第2次世界大戰以後 政治構造 및 東北亞政治構造가 현저히 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南北韓間의 敵對的 關係는 變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심화되는 傾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 研究節次

本 研究의 궁극의 目的은 南北韓關係를 설명하기 위한 「模型」 (model) 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國際政治構造와의 相互關聯性 与否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단계로서 國際政治關係의 구조적 성격을 이미 제시되어온 論理的 模型—勢力均衡模型 (balance-of-power-model), 兩極模型 (bipolar model), 多極模型 (multipolar model) 등을 中心으로 하여 分析하며, 特別히 國際政治構造의 變化에 따른 弱小國의 相對的 地位의 變化 및 行態의 特性을 고찰한다. 그 이유는 韓國과 北韓은 아직도 弱小國의 地位를 脫皮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弱小國이 갖는 일반적 特性을 이해하여야 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단계로서, 韓半島問題를 東北亞政治構造속에서 分析한다. 韓半島上에서의 南北關係는 東北亞政治構造를 구성하는 核心要素이기 때문에 南北韓關係와 東北亞政治構造를 別個의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東北亞政治構造를 「美·蘇」中心의 兩極模型, 「美·蘇·中」中心의 三極模型, 「美·蘇·中·日」中心의 四極模型을 위주로 하여 分析한 후 그 構造的 變化와 南北韓關係간의 相互關聯性 与否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南北韓關係의 模型定立이다. 南北韓關係를 理論的으로 설명하기 위한 獨立變數로서 「內的」 및 「外的」要因이 同時에 고려되며 또한 變數간의 因果關係를 규명하기 위한 論理的

假定이 설정된다. 「內的要因」이란 韓國과 北韓의 屬性的 特性, 즉 軍事力, 經濟力, 政治理念, 好戰性등을 포함하며, 「外的 要因」이란 國際政治構造 및 東北亞政治構造의 特性 즉, 「極性」(Polarity), 「安定性」(Stability) 등을 의미한다. 因果關係를 위한 論理的 假定은 國際政治學者인 R.J.Rummel의 Status-field理論과 心理學者인 F.Hider의 均衡理論(balance theory)에 의거한다. 따라서 본 研究에서 定立하려는 南北關係模型은 南北韓關係를 「相互對稱的」(symmetrical)인 것이 아니라 「非對稱的」(asymmetrical)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단순한 南北關係라기 보다는 「北韓의 對南關係」 또는 「南韓의 對北關係」를 의미하는 것이다.

II. 國際政治構造와 弱小國

1. 國際政治構造의 經驗的 模型

國際體系의 構造的 性格을 描写하기 위한 理論的 模型은 여러가지 있으나³⁾ 經驗的 事實로서 나타난 模型은 크게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勢力均衡模型」(balance of power model), 「兩極模型」(bipolar model), 「多極模型」(multipolar model) 이 3가지 模型은 각각 相異한 구조적 特性을 가지며 弱小國家의 國際政治的 地位, 弱小國간의 關係 및 弱小國과 強大國간의 關係도 이러한 構造的 性格의 變化에 따라 變해 온 것이다.

3) Morton A. Kaplan 은 國際體系를 6가지의 模型으로 分類하며, 各 模型別로 體系構成單位의 行爲를 支配하는 必須行爲規則(essential behavioral rules)을 提示한다. 그 6가지 類型이란 1) balance of power system, 2) loose bipolar system, 3) tight bipolar system, 4) universal system, 5) hierarchical system, 6) unit veto system 이다. 各類型의 特性 및 필수규칙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7), pp. 21-53 參照한편 Stanley Hoffmann 은 國際體系를 同質的-異質的 體系(homogeneous-heterogeneous system) 혹은 穩健的-革命的體系(moderate-revolutionary system)로 区分하며, Henry A. Kissinger 는 傳統的-革命的(traditional-revolutionary system)으로 区分하고있다.

1) 勢力均衡模型 (Balance of Power Model)

「나폴레온 戰爭」 (Napoleonic wars) 이후부터 第一次世界大戰까지의 유유럽 政治體系는 勢力均衡模型의 좋은 例이다. Morton A. Kaplan 에 의하면 勢力均衡體系는 다른 國際體系와 몇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즉 1) 勢力均衡體系는 政治的 下位體系 (Political subsystem) 를 갖지 않는 國際社會體系 (international social system) 이며, 2) 그것의 行爲單位는 國家뿐이며, 3) 필수적인 行爲者의 數는 최소한 5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⁴⁾

勢力均衡體系「安定性」 (Stability) 은 그 體系內에 포함되어 있는 主要行爲者의 數, 그들의 經濟 및 軍事力 그리고 勢力均衡을

前頁에서 繼續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Stanley Hoffmann, Gulliver's Troubl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7), pp. 316-319 參照.

- 4) Kaplan, op.cit., p.22. Kaplan 에 의하면 政治體系 (Political system) 란 社會體系 (social system) 內에서 그것의 行爲法과 法규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때 限해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國家는 政治體系를 갖고 있지만, 國際體系는 政治體系的 성격울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bid., p.14

유지하기 위한 行為規則을 준수하려는 그들 行為者의 결의에 달려 있다.

그들간의 상대적인 經濟力이나 軍事力이 어느 정도의 均衡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어느 한 國家 또는 行為者가 体系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이며, 또한 단지 두 國家만이 主要 行為者로서의 지위를 갖게될 때에도 역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유리한 時期에 가서는 한 國家가 다른 國家를 정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Kaplan의 勢力均衡模型에 의하면 三国支配体制 (three-state system) 역시 불안정한 것이다.

가령 어느 두 國家가 동맹을 하여 다른 한 國家를 정복할 경우, 이 三国支配体制은 다시 二国支配体制 (two-state system)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勢力均衡体系의 安定性を 높이기 위해서는 主要 行為者가 최소한 5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Kaplan의 견해이다.⁵⁾

勢力均衡模型 속에 내포된 필수적 行為規則으로서 Kaplan은 다음

5)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Morton A. Kaplan, "Intervention in Internal War: Some Systemic Sources,"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Aspects of Civil Strif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4), pp. 94-95 参照.

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⁶⁾ 1) 各 行為者는 자신의 能力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되 戰爭보다는 協商을 통해서 하며, 2) 能
力을 증가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보다는 戰爭을 수행
하며, 3) 한 主要行為者와 戰爭을 하되 그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戰爭을 중지하며, 4) 「超國家的 組織原則」(supranatio-
nal organizing principles)를 추구하는 國家를 견제하며,
5) 全 體系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는 國家나 聯合國에 대항하
며, 6) 戰爭에 敗한 國家를 제거하는 대신 미래의 同盟對象國으
로서의 役割을 유지시킨다. 즉 勢力均衡體系下에서는 모든 國家를
現在는 敵對關係에 있는 國家라 할지라도, 暫在的인 同盟對象國으로
看做하기 때문에, 이 體系下에서의 同盟關係란 매우 流動的이며
短期的인 利害關係에 의해서 變化되는 것이다.

第一次世界大戰 以前 유유럽 勢力均衡體系下에서의 主要 行為者는
英國, 仏蘭西, 獨逸,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帝國, 이태리 등이었다.
나폴레온 戰爭으로 야기된 國際秩序의 混亂狀態를 수습하기 위하여
이들 유유럽 國家들은 「유유럽 台意體制」(the Concert of Europe)
를 組織하고 勢力均衡原則에 입각한 유유럽 平和政策을
추구하였으나, 그들간의 利害關係가 조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6) Loc.cit.,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p.23.

결국 第一次世界大戰을 치루지 않을 수 없었다. 勢力均衡이란 概念이 내포하는 의미란 매우 넓기 때문에⁷⁾ 오늘날의 國際政策 現象도 勢力均衡의 概念으로서 설명하는 경향이 많다. 勢力均衡概念의 내적 의미야 어떻든 간에 그것은 傳統的으로 安定的 体系의 가장 理想的 模型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혹은 体系의 安定維持를 위한 최소한의 「必要條件」(necessary condition)으로서 오늘날의 많은 政治人과 國際政治學者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즉, 兩極体系나 多極体系도 그들의 相對的인 安定性이야 어떻든 간에 모두가 勢力均衡体系의 一種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것이다.⁸⁾

7) Inis L. Claude, Jr.는 勢力均衡의 의미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狀況(situation)으로서의 의미, 政策(policy)로서의 의미, 象徴(symbol)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体系(system)으로서의 의미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모두가 두 가지 變數를 共有한다. 國家間의 国力分布形態 그리고 同盟形態 Inis L. Claude, Jr., *Pow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 11-39; Dina A. Zinnes, "An Analytic Study of the Balance of Power Theor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3 (1967), pp. 270-284.

8) 兩極体系와 多極体系의 相對的인 安定度에 關한 討論을 위해서는 朴庸玉, "國際体系의 構造的 성격에 關한 概念的 考察: 構造, 極性, 安定性 및 變換概念의 多次元性" 「國際政治論叢」, 第 16 輯, 1976, pp. 65-69. 參照.

2) 兩極模型 (Bipolar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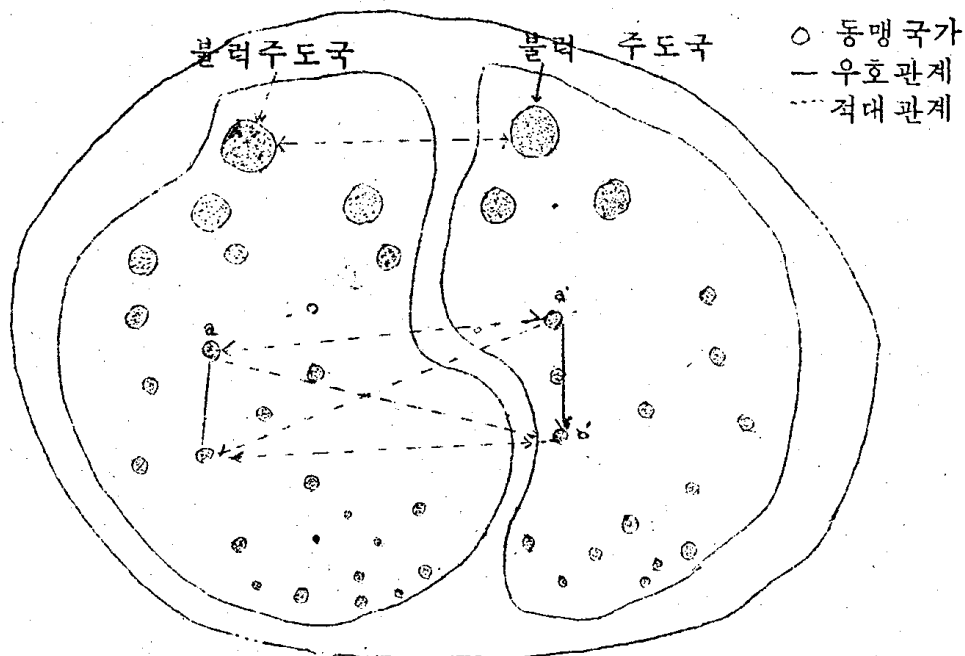
18世紀, 19世紀의 유유럽體系를 代表하던 勢力均衡體系의 構造的 性格은 第一次世界大戰以後 國際聯盟 (League of Nations) 의 登場과 더불어 變質되게 되었다. 우선 國際體系의 「境界」 (boundary) 가 유유럽地域에서 全世界로 擴張되었으며 따라서 行為者의 數도 현격히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第二次世界大戰以後 「國際聯合」 (United Nations) 의 創設로 因해서 더욱 加速化 되었다.

第二次世界大戰後의 뚜렷한 현상은 한때 國際政治를 支配하던 영국, 불란서, 독일 등의 유유럽 強大國들이 물러가고 그 대신 美國과 蘇聯이 國際政治의 두 주역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두 國家의 理念的 갈등은 점점 더 擴大되어 1950年代初에는 세계의 모든 主要國家가 美·蘇를 中心으로 한 두 理念圈에 속하게 됨으로써 점차 兩極體系의 性格을 보이게 되었다.

兩極模型의 構造的 성격은 전통적인 勢力均衡模型의 성격등 여러면에서 구별된다. 兩極模型에서는 우선 두개의 勢力圈이 軍事的인 의미에서 全國際體系를 지배하게 된다. 第二次大戰後에 대두된 兩極主義 (bipolarism) 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勢力均衡과는 달리 어떤 短期的인 利害關係를 조정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長期的인 共同利益을 바탕으로 하여 形成된 것이다. 따라서 「블럭」 (bloc) 內의 構成員들간의 紐帶感 및 相互依存度에 있어서는 다

소 差異가 있을 수 있으나 블럭과 블럭사이에서 構成員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兩極體系構造는 그 성격의 硬直性的 強度에 따라 「탄탄한 兩極體系」 (tight bipolar system)와 「느슨한 兩極體系」 (loose bipolar system)으로 구분한다. 탄탄한 兩極體系란 첫째, 體系의 모든 構成員 또는 行為者는 두개의 勢力圈中 어느 한 勢力圈에 속하며, 둘째, 體系의 安定性을 위해서는 각 勢力圈이 階層的으로 組織되어 있어야하며, 셋째, UN과 같은 超國家的 國際組織의 가 능이 수행될 수 없다.⁹⁾ 이외에도, 같은 勢力圈에 속해 있는 國家間의 紐帶感이 높아 相互依存關係에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勢力圈의 構成員에 대한 정치적 「이미지」 (image) 나



(그림 - 1) 탄탄한 兩極體系

9) Kaplan, op.cit., pp.43-45.

견해가 같기 때문에 그들의 行動樣式도 비슷하다.¹⁰⁾ 반면에, 다른 勢力圈에 속해있는 國家들은 서로 敵對關係에 있으며 그들의 行動樣式 또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對話도 잘 나누지 않음으로써 그들간의 敵對感이 더욱 惡化되는 경향이 많다.¹¹⁾

이러한 “탄탄한 兩極體系”의 성격이 훨씬 緩和된 體系가 「느슨한 兩極體系」인 것이다. 「탄탄한 兩極體系」는 國際政治史上 실제로 나타났던 때는 없다. 단지 하나의 論理的인 模型에 불과하다. 그러나 「느슨한 兩極體系」를 오늘날 國際體系的 實質的 模型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매우 높다. 느슨한 兩極體系에서는 두強大國을 中心으로 한 두 勢力圈에 속한 國家들 외에 아무 勢力圈에도 속하지 않는 國家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國家들은 오늘날 「非同盟國」(nonaligned powers)이라 불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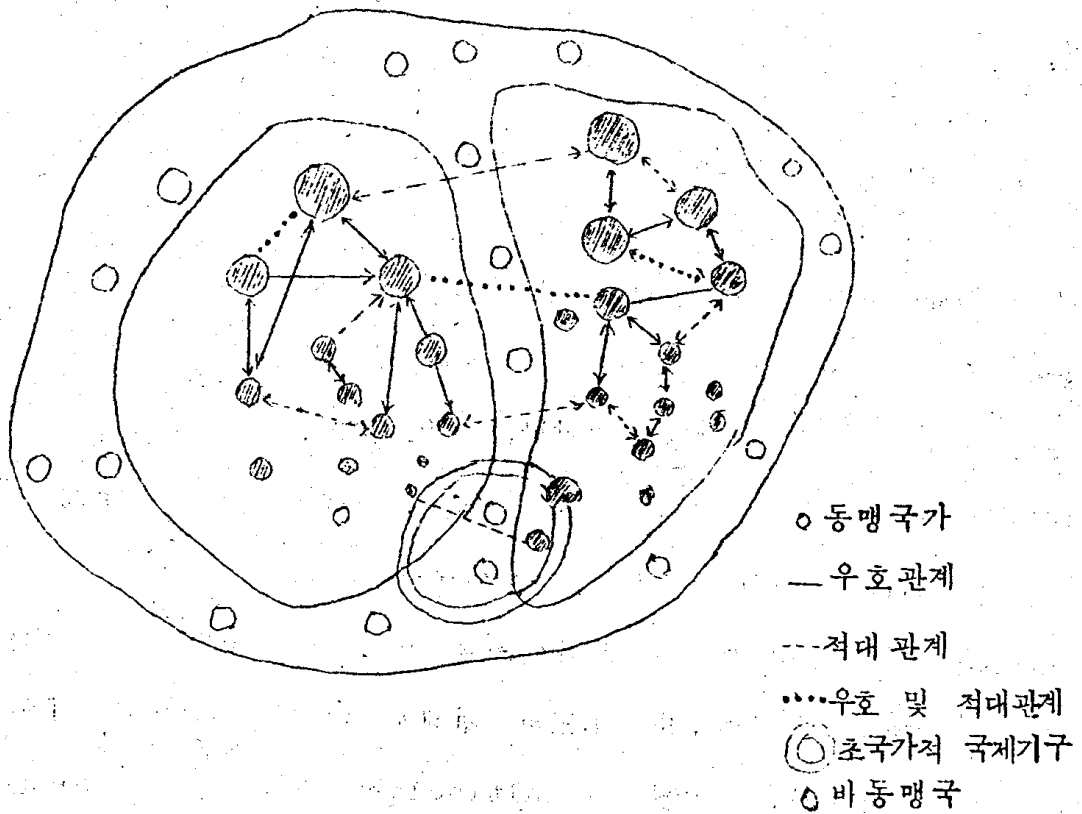
느슨한 兩極體系에서 이러한 非同盟國들의 主要機能은 「仲裁」

註10) Marshall R.Singer, Weak States in a World of Powers (New York: Free Press, 1972), pp.8-14.

11) Ole R.Holsti, "The Belief System and National Images: A Case Study,"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I(Sept., 1962), pp.250ff; T.Newcomb,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1953), pp.393-404.

(mediation) 役割이다. 즉 두 勢力圈間에 갈등을 仲裁하거나 더 惡化되어 勢力衝突사태로 發展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非同盟國들의 軍事力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仲裁者로서의 그들의 政治的 地位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勢力圈中 그 어느 하나도 非同盟國이 다른 勢力圈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第三者서로의 利點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느슨한 兩極體系에서는 各 勢力圈內의 階層的 性格이 탄탄한



(그림 - 2) 느슨한 兩極體制

兩極體系에 대하여 훨씬 稀薄하며 勢力圈에 속해 있는 主要國家들은 각각의 獨自性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勢力圈內의 紐帶感 및 相互依存性도 상당히 저하될 뿐만 아니라 力圈間의 相互交流現象도 현저히 증가된다. 또한 UN과 같은 超國家的 國際機構의 機能이 強化되어, 比同盟國이 非公式的으로 수행하는 仲裁 및 調整役割을 公式的 政治機構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느슨한 兩極體系的 安定性은 본질적으로 兩 力圈間의 軍事的 및 政治的 갈등형태에 달려 있지만 이 외에도 非同盟國 및 UN과 같은 超國家的 國際機構의 効率的인 仲裁 및 調整役割에 의해서도 左右 된다.

3) 多極模型 (multipolar model)

多極體系란 세계 이상의 勢力圈이 軍事的인 의미에서 全 國際體系를 지배하며 각 勢力圈의 主導國들간의 軍事力이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第二次大戰後 國際體系的 極化現象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或者는 1950年代의 兩極體系 그리고 1960年以後의 多極體系를 주장하며, 或者는 第二次大戰以後부터 오늘날까지의 國際體系를 美·蘇를 중심으로한 兩極體系로 규정하기도 하며, 또 第三의 견해로서 Hoffmann은 「兩極性」(bipolarity), 「多極性」(multipolarity), 그리고 「多中心性」(polycentrism)의 「收斂傾向」(converging tendency)을 주

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 것은 「極性」(polarity)의 概念을 軍事力의 측면에서 정의하느냐, 아니면 政治 및 心理的인 측면에서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多極性이 軍事的인 의미를 갖는다면, 多中心性은 政治 및 心理的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세가지 다른 견해에서 처음 두 견해는 國際体系의 極性を 「核軍事力」(nuclear forces)을 기준으로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두 견해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軍事力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戰後의 國際体系는 분명히 1950年代의 兩極性에서 1960年代以後의 多極性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核技術의 發達水準이나 核軍事力의 威力을 相對的으로 평가한다면 美·蘇 두 超強大國의 軍事力과 그 나머지 核保有國들의 軍事力의 差異는 더욱 더 커졌으며 따라서 兩極性은 더욱 強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한편 第三의 견해인 收斂傾向은 國際体系의 構造的 性格을 核能力 또는 軍事力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政治心理的인 측면에서도

12) Donald S. Zagoria, Vietnam Triangle: Moscow/Peking/Hanoi (New York: Pegasus, 1967), pp. 17-27.

13) Wolfram F. Hanrieder, "The International system: Bipolar and Multipola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IX (Sept., 1965), p. 300.

分析하여 그 極性を 설문하는 것이다. 즉 美蘇의 軍事力이 절대적으로 우월하지만 核武器의 拡散現象과 同時에 國際体系內에 존재하는 独自の인 「意思決定센터」(decision-making centers) 혹은 영향력을 발산하는 中心点의 數에 의해서 極性を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収斂現象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¹⁴⁾ 이러한 의미에서 Kissinger는 「軍事的 兩極性」(military bipolarity)과 「政治的 多極性」(Political multipolarity)를 말하며, 「軍事的 兩極性」과 「政治的 多極性」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오늘날 國際社会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또한 Dinerstein의 「兩 . 多中心性」(bi-polycentrism)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⁶⁾ 1950年代의 兩極性이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 또 오늘날의 國際社会가 정말로 多極的 혹은 多中心的 体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兩極体系的 性格의 變化는 蘇聯이 첫번 ICBM을 발사한 1957년부터 시작되어 1963年 美.

14) Hoffmann, Gulliver's Troubles, pp.71-73, 348-356.

15) Henry A. Kissinger,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W.W.Norton, 1974), pp.60-61, 65.

16) Herbert S. Dinerstein, "The Transformation of Alliance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s LIX(Sept., 1965), pp.595-597.

英.蘇간에 체결된 部分核実験禁止条約 (the Partial Test Ban Treaty) 부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 國際政治構造의 變化와 弱小國

1) 勢力均衡과 弱小國安保

第一次世界大戰 以前 傳統的인 勢力均衡體系下에서 強大國은 弱小國을 하나의 利用道具로 밖에 취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法的 制度的 統制裝置는 존재하지 않았다. 國가의 主權 (Sovereignty) 은 오직 強大國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弱小國들은 強大國 合意에 의한 결정에 순응해야 할 의무만을 가졌다.¹⁷⁾ 弱小國들이 그들의 生存과 獨立性을 유지하기 위한 傳統的인 手段은 스위스나 벨지움과 같이 中立政策을 추구함으로써 유럽政治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신을 이탈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中立國으로서의 地位도 強大國간의 勢力均衡政策의 副産物로서 혹은 帝國主義的 慾望의 대상이 되지 못함으로써만 가능하였던 것이다.¹⁸⁾

그러나 19세기말 「유럽合意體系」 (the Concert of Europe) 가

17)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60), p.459

18) Ibid., pp.176-177.

점차 崩壞되기 시작하고 強大國간의 分열로 인하여 國際體系의 構造的 性格이 變하게 되자 弱小國들의 政治的 地位가 점차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第一次大戰後의 「國際聯盟」과 第二次大戰後의 「國際聯合」은 證하는 「國際主義的 倫理」(internationalistic ethic)와 더불어 弱小國들의 生存權에 관한 法的 制度的 保障을 추진하게 되었고, 더욱이 UN에서의 「集約安保體制」(Collective Security System)와 美蘇간의 核均衡은 弱小國들에게 그들 國力의 한계를 넘어서는 國際政治參與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弱小國들이 갖고 있는 安保上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Kenneth E. Boulding의 말을 引用하면 오늘날 모든 弱小國들의 生存이란 「條件附生存」(Conditional viability)인 것이다.¹⁹⁾ 즉 두 勢力圈간의 敵對關係가 동시에 軍事的 均衡을 수반하므로써 다른 勢力圈에 속해있는 弱小國을 侵略하기 위하여서는 치루어야 할 犧牲이 침략대상국이 갖고 있는 政治的 및 戰略的 價値에 비해 너무 클 경우 혹은 그 弱小國의 存在가 무시되어 強大國들이 침략할 의사를 갖지 않으면서도 다른 強大國에 의하여 占有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등등에 의하여 오늘날 많은 弱小國들의

19)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Harper and Brother, 1962), p. 58.

生存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 弱小國이 軍事同盟에 가담하든 非同盟主義를 挾하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強大國간 또는 勢力圈간의 軍事的均衡은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이 어떻든간에 弱小國의 安保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것 같다. 오늘날 많은 弱小國들이 추구하고 있는 「同盟戰略」과 「非同盟戰略」은 모두가 1950年代의 兩極體系에서와 같이 敵對關係에 있는 뚜렷한 두 勢力圈이 대립되어 있을때 그 戰略的 効用性이 가장 높다. 하겠다. 「同盟弱小國」(aligned small powers)은 同盟國으로서의 政治的 價値를 保有하여 「同盟強大國」(aligned great powers)에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며, 「非同盟弱小國」도 또한 그들대로의 外交的 또는 象徴的 價値를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兩勢力圈사이에서 政治的 및 外交的 柔軟性과 機動性을 發揮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敵對關係에 있던 두 勢力圈이 相互對決대신 相互共存 또는 協商方向으로 점차 접근하게 되면 同盟戰略이나 非同盟戰略은 모두 그 작용기반의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2) 現代國際政治體系의 構造的 特性

1950年代의 冷戰狀態下에서는 美·蘇가 추구한 對外政策의 主目的이 각각의 영향권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弱小國들은 同盟 또는 非同盟에 상관없이 象徴的 存在로서의 가치

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60年代初 부터는 東·西兩勢力圈간의 關係에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 되었다.

첫째, 美蘇간의 相對的인 影響圈이 점차 확정되어 가고 있었고 또한 敵對的인 對決대신 相互協助的인 妥協, 說得, 共存의 方向으로 서로의 對外政策을 접근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東·西간에 「데탕트」(detente)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둘째, 美·蘇간의 데탕트와 동시에 各勢力圈內의 유대감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63年의 部分核実験禁止條約을 계기로 美·仏· 및 中·蘇間의 關係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美·蘇의 對外援助계획도 다양화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勢力圈에 속하는 국가에게도 원조가 제공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勢力圈에 속하는 中堅國家들간의 相互接近경향도 현저해 저서 美·蘇 데탕트는 東·西데탕트로 확장되는 추세였다.²⁰⁾

셋째, 東·西데탕트의 시작과 더불어 「南·北葛藤」(North-South Conflict)은 더욱 심화되어 갔으며 「非同盟主義」(nonalignment)는 南·北對決의 기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20) 이점에 대해서는 Yong-ok Park, "Res Communis versus Res Nullius: The International Legal, Political and Strategic Context,"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April, 1976, Yonsei Univ.), pp.85-91; Dinerstein, "The Transformation of Alliance System," pp.596-598
参照

1970年代에 들어와서 國際政治体系의 構造的 性格은 더 한층 복잡해 졌다. 1972年 Nixon 美大統領의 中共訪問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美·中共관계의 개선은 蘇·中共關係의 악화와 더불어 美·蘇·中共간의 「三角關係」(triangular relationship) 構造가 전반적인 國際關係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이 三角關係의 構造의 특성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美·蘇·中共중 어느 한 國家도 自國을 제외한 다른 두 國家의 相互接近을 自國安保에 대한 위협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둘째, 第三世界의 弱小國 또는 다른 弱小國들이 어느 한 特定強大國의 영향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셋째, 美·蘇대당트나 美·中共대당트는 蘇·中共대당트가 뒤따르지 않는 限, 그들간의 三角關係자체의 不安定性 및 限界性을 탈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 3大強國에 依한 世界秩序의 확립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國際政治構造의 이러한 特性이 弱小國들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樂觀的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前提는 美·대당트나 美·中共대당트가 결코 同盟關係의 構造를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당트의 분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들 超強大國들의 對外援助政策은 各勢力圈內의 유대와 安定性을 확고히 하려는 반면에 다른 勢力圈의 유대와 안정성은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共

産主義國家들의 世界革命戰略에 變化가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일
뿐만 아니라 現 Carter 美大統領의 人權主張도 共產圈의 약화를
촉진시키는 大戰略 (grand strategy) 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²¹⁾ 또한 核時代下에서 強大國들에 의한 對外援助는 George
Liska 의 말과 같이 「戰爭의 代案」 (an alternative to war)
이 아니라 「戰爭代用物」 (a substitute for war) 이라 할 수도
있다.²²⁾

3) 同盟戰略과 非同盟戰略의 現實

이와 같은 現代 國際政治體系의 構造的 特性을 고찰하여 볼
때 오늘날 弱小國들의 同盟 및 非同盟戰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同盟戰略의 성격은 攻擊的일 수도 있고 防禦的일 수도 있다.

21) 本 筆者는 Carter 美大統領의 人權主張 또는 道德政治를
단순히 人權의 伸張만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은 人權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共產圈의 약화를 촉진시키
는 對共戰略의 일환이며 國際政治에서 美國의 主導權을 강화
화 시키기 위한 大戰略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本人의
私見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더 구
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2) George Liska, The New State Craf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0, p.3.

争」(diplomatic warfare) 으로 사용하며, 또한 非同盟國들의 상
대상 세력권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吸收되는 사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그 결과는 非同盟地域內에서 強大國들에 의한 「干
渉」(intervention) 과 「逆干涉」(counter-intervention) 의
연속일 것이며, 따라서 非同盟國과 東·西兩陣營간의 관계에 더 많
은 混沌과 不確實性を 加할 것이다.

둘째, 東·西關係가 緩和되고 非同盟主義가 南北對決의 象徴으로
나타나자 美·蘇는 第三世界에 대한 그들의 經濟援助가 그 원조에
대응될 만한 政治 및 外交的 效果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
식하게 됨으로써 第三世界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低下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非同盟國들의 經濟發展計劃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과거의 外交的 柔軟성과 機動性에도 치명적인 것이다.

셋째, 이러한 經濟的 및 外交的인 打撃으로 非同盟圈內의 심각한
地域危機的문제들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서는 非
同盟理念의 의미와 存続如否自体에도 큰 影響을 미칠 수 있다.

넷째, 非同盟國들간의 地域的 危機문제와 그들의 國際的 地位와
役割의 문제는 相互補完的 關係에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하나
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限, 위에서와 같은 현상은 惡循環的인 것
이라 하겠다.

그러나 弱小國의 同盟戰略은 또한 同盟當事國의 攻擊力 및 防禦力을 증가시키기 위한 軍事的 側面, 同盟相互間 또는 다른 國家에 政治的 影響力을 행사하기 위한 政治的 側面, 그리고 어느 特定對外政策에 대하여 同盟國으로 부터 支持를 받기 위한 外交的 側面등의 여러 각도에서 유익한 安保戰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利點은 同盟當事國들이 비교적 均等한 위치에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美·蘇대항트, 美·中共대항트, 그리고 東·西 中堅國들간의 점진적 접근으로 인해서 弱小國의 同盟戰略이 당면하게 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弱小國과 強大國간의 見解差에 있다 하겠다.

즉 弱小國의 同盟戰略은 그 자신이 개입되어 있는 「地域均衡」(local balance)에 대한 위협을 해소시킴으로써 그 자신의 안보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반면에, 強大國의 同盟戰略은 世界政治構造 전체의 均衡에 대한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強大國 中心의 世界秩序를 확립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즉 한 弱小國과 同盟關係에 있던 強大國이 그 弱小國과 敵對關係에 있는 다른 強大國과 共存의 關係를 넘어서 妥協과 協助의 관계로 전향될 때 強大國들의 世界的 均衡을 유지하기 정책과 弱小國들의 地域的 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政策이 一致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한편 非同盟戰略도 國際政治體系의 構造的 變化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첫째, 東·西兩陣營의 非同盟國에 대한 各種援助를 Liska의 견해처럼 하나의 「經濟戰爭」(economic warfare) 또는 「外交戰

Ⅲ. 東北亞政治구조와 韓半島

1. 東北亞의 勢力均衡과 韓半島

韓半島는 中國과 接해 있는 그의 地理的 位置 때문에 歷史的으로 中國과 對決하거나 아니면 그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中國 勢力이 弱해 질 때에는 항상 日本과 蘇聯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韓半島는 傳統的으로 中國, 蘇聯, 日本간의 三角競爭의 對象이 되어왔다.

1894 ~ 1895 年の 淸 . 日戰爭이나 1904 ~ 1905 年の 露 . 日戰爭도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이러한 三角關係의 脈絡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韓半島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간의 勢力均衡現象은 第二次世界大戰以後 그 構造的 性格에 있어서 많은 變化를 거듭하여 왔다.

第二次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分斷된 韓半島는 美國과 蘇聯에 의해서 점유되어 美蘇간의 勢力均衡으로 變化되었다가, 1950 年末부터 대두된 中 . 蘇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美 . 蘇간의 勢力均衡은 다시 美 . 中 . 蘇간의 三角關係로 轉換되었다. 오늘날 東北亞政治 構造的 安定性은 韓半島를 중심으로한 美 . 中 . 蘇간의 勢力均衡의 安定性에 크게 左右된다. 이 美 . 中 . 蘇간의 勢力均衡에 가장 민감한 國家는 日本이다. 日本의 安係는 自身の 軍事力 強化에 의한것 보다는 이들 三國間의 勢力均衡形態에 따라 더 많이 左

右되고 있기 때문에 日本은 이 均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自國의 利益을 증진시키려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東北亞政治構造가 더욱 복잡해진 것은 소위 「四強體制」의 成立으로 인한 流動性과 不確實性의 增加라 할 수 있다.

韓國의 安保와 南北韓關係는 全般的인 國際政治構造의 變化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특히 韓半島를 둘러싼 이들 四強國의 戰略的 利益關係와 이들간의 勢力均衡 樣狀에 더 많이 左右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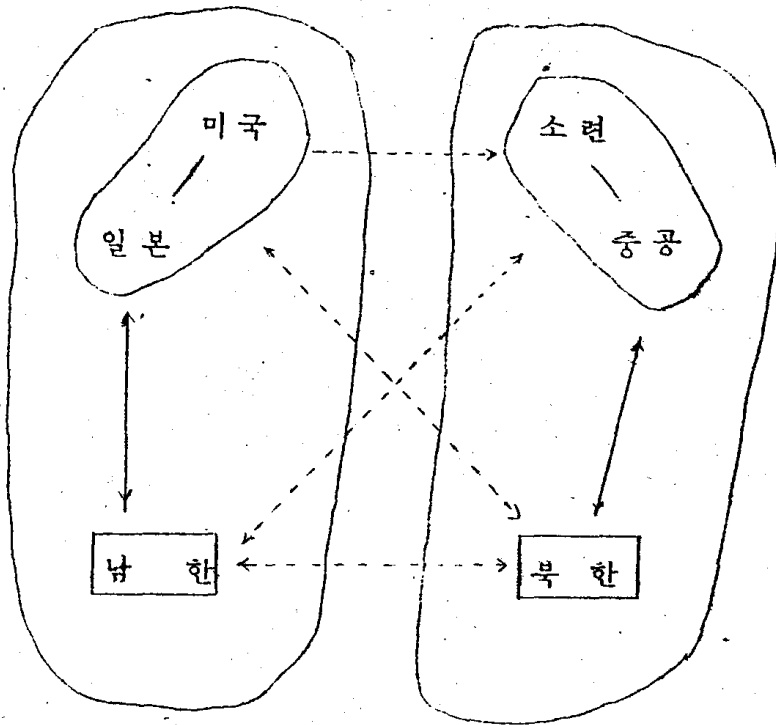
1) 兩極模型 (美.蘇)

東北亞兩極體系는 1950年代의 全世界的인 兩極體系的 일부로서 形成되었던 것이며 특히 韓半島는 東西간의 理念的 갈등이, 實제의 武力衝突로 이끌어졌던 最初의 地域이기도 하다.

1950年代의 美國과 蘇聯은 東西兩勢力圈 主導國으로서 自身の 安保問題뿐만 아니라 각자의 勢力圈에 속해 있는 同盟國들의 安保問題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따라서 各勢力圈內의 紐帶感과 勢力圈간의 敵對感은 상당히 높이 유지될 수 있었으며, 世界 모든 地域에 있어서 美國과 蘇聯의 役割은 決定的이었다.

韓半島를 중심으로한 東北亞政治現象에 있어서도 美國과 蘇聯의 役割이 결정적이었으며, 中共과 日本은 각기 蘇聯과 美國의 강력한 同盟國으로서의 地位밖에 갖지 못하였다. 즉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政治는 美國과 蘇聯을 軸으로한 兩極構造를 갖고 있었

다. 1950年代의 東北亞兩極體系는 그림 - 3에 표시된 바와 같이 Morton A. Kaplan의 「탄탄한 兩極體系」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各 國家間의 關係는 均衡을 이루고 있다.²³⁾ 그러나 構造的으로는 均衡을 이루고 있다 하여도 韓半島의 安定을



(그림 - 3) 1950年代의 東北亞政治構造

23) 여기서 均衡 (balance) 이라 함은 心理學의 均衡理論 (balance theory)에서 부터 나온 概念으로서 調和 (Consonance)에 관한 다음네가지의 命題가 均衡概念의 核心을 이룬다.

- 1) 나의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이다.
- 2) 나의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다
- 3) 나의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다.
- 4)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Fritz Heider, "Attitude on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21 (1946): idem.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8) 參照

보장하지는 않는다. Kaplan 이 주장한 바와 같이 행위의 主体가 둘 밖에 없는 경우는 매우 不安定할 수도 있다.²⁴⁾ 즉 1950 年代 東北亞政治体系에 있어서 행위의 主体는 美国과 蘇聯뿐이었기 때문에 이 두 國家중 어느 한 國家의 결심에 따라 그들간의 理論的 갈등이 第三地域에서의 武力衝突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50 年 北緯의 南侵은 이러한 脈絡에서 이해될 수 있다.

韓半島를 중심으로한 1950 年代의 東北亞兩極政治構造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美·蘇가 그들간의 敵對關係를 계속하며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를 포기하지 않는 限, 南北韓關係의 改善은 不可能한 것이었다.

둘째, 韓半島의 安정은 美蘇간의 軍事力均衡에 입각한 相互抑制力의 結果였으며, 그 均衡이 깨지든가 혹은 相互抑制力의 効力이 상실될 경우에는 항상 戰爭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韓國과 北韓은 모두 軍事的, 外交的 및 經濟的 自主性 (autonomy)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南韓의 北進統一概念이나 北韓의 赤化統一概念은 모두 美·蘇의 介入을 前提로 한 것이었다.

넷째, 國際聯合역시 美·蘇의 主導下에 있었기 때문에 美·蘇간

24) 註 5 를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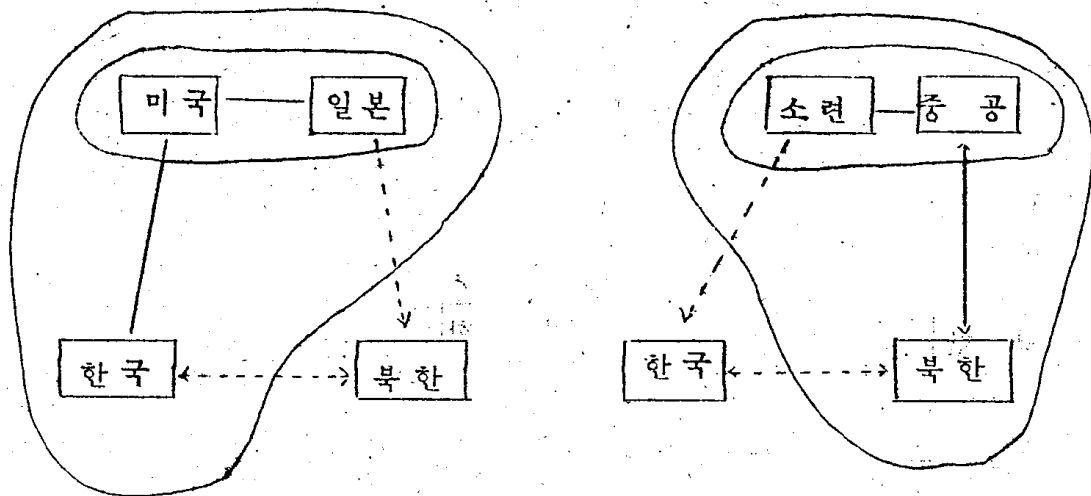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限, 東西葛藤의 仲裁, 調整 및 緩和의 機能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더우기 南北韓關係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다섯째, 非同盟國의 國際政治的 役割은 지극히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南韓과 北韓의 非同盟國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冷淡한 편이었다.

1950年代의 南北韓關係는 東西간의 埋念的葛藤과 韓半島를 둘러싼 美蘇의 利害關係 그리고 蘇聯의 「膨脹主義」(expansionism) 와 이에 대한 美國의 「積極對應政策」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南北韓關係는 國內的인 要因보다는 國外的인 要因에 의하여 더 많이 左右되었으며 南韓의 對北政策과 北韓의 對南政策은 美國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一致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음의 그림은 1950年代 南北關係의 特性을 말해준다.

2) 三極模型 (美·蘇·中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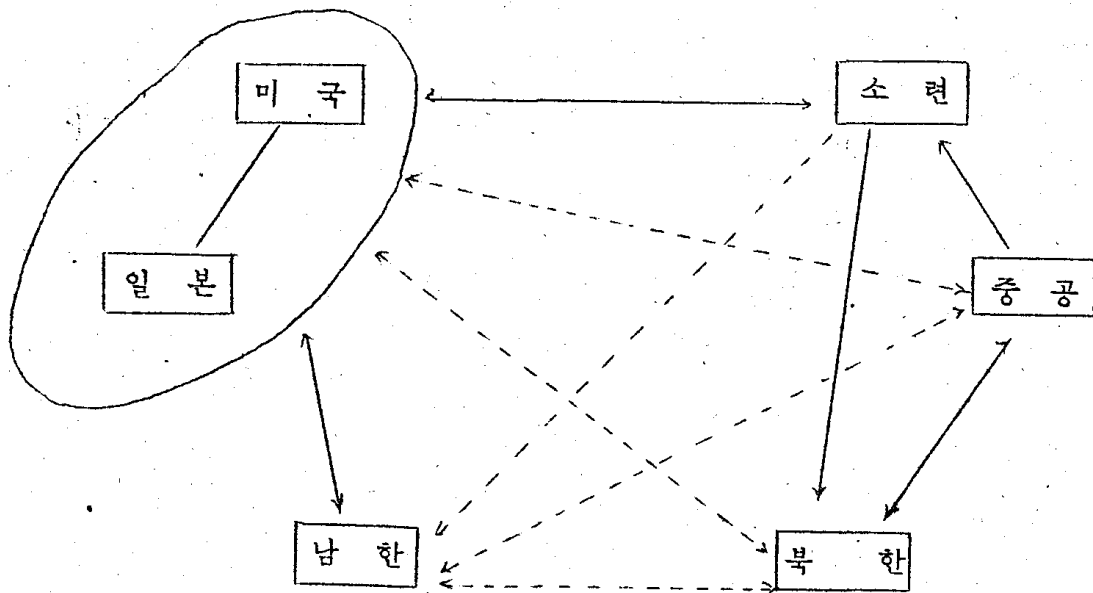
1950年代의 東北亞兩極構造는 1960年代의 三極構造로 변



(그림 - 4) 1950年代의 南北韓關係

화의 원인은 1950年代末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中·蘇 葛藤關係이며, 특히 1963年の 「部分核実験禁止条約」 이후 더욱 惡化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 条約을 계기로 美国과 蘇聯간의 대당트가 시작됨과 동시에 中·蘇간의 理念的 葛藤은 더욱 심화되었다.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비단 共產圈內의 紐帶關係만이 弱화된 것이 아니라 西方圈도 비슷한 現象을 보였다. 核武器 使用문제를 둘러싼 美·蘇간의 불화가 그 例이다.

蘇聯과 中共간의 葛藤은 北韓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競争을 유발시켰다. 즉 中·蘇 양국은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를 알고



(그림 - 5) 1960年代의 東北亞 政治構造

있기 때문에 그들의 國家安保를 위해서는 北韓이 상대방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자기의 영향권하에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蘇양국은 北韓에 접근하기 위한 競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편 이러한 中·蘇간의 葛藤 및 競争하에서 北韓은 사실상 兩國으로 부터 많은 軍事 및 經濟援助를 받을 수 있었다. 위의 그림은 1960年代의 東北亞三極構造를 나타낸 것이다.

1960年代의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東北亞政治構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共은 独立的인 行為의 主體로서의 役割을 갖는 반면에 日本은 그대로 美國의 영향권하에 들어 있으며 保護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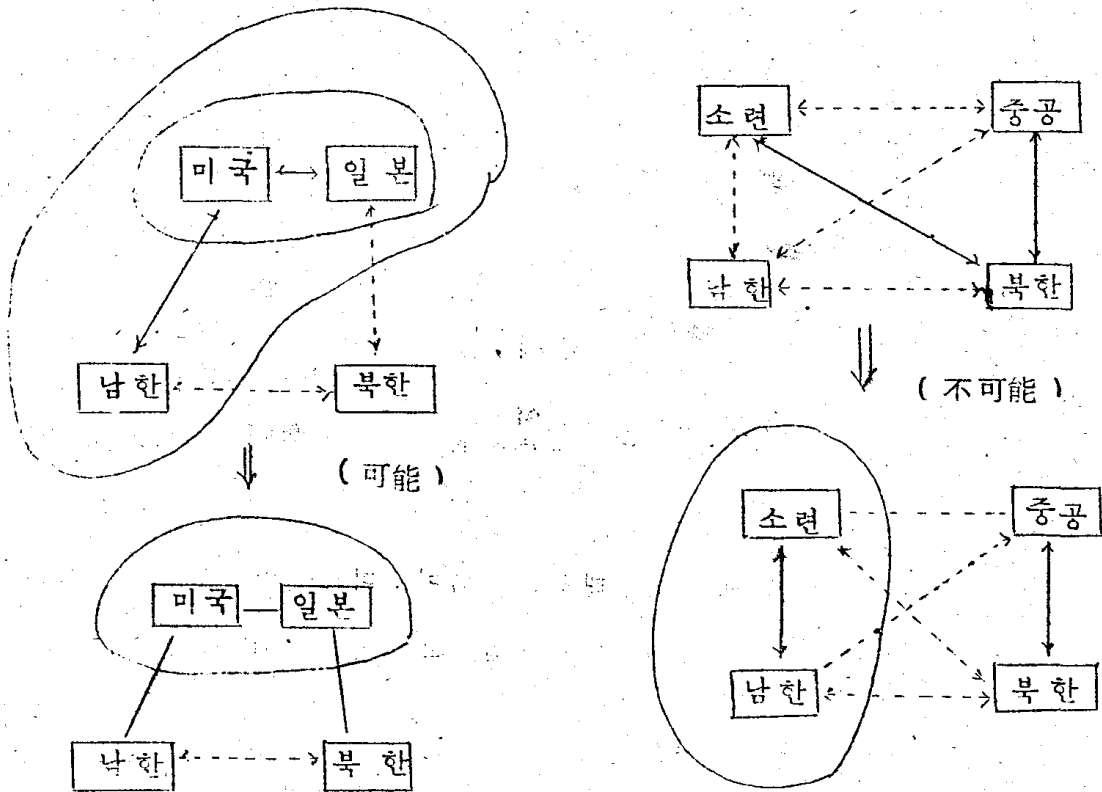
둘째, 美·蘇대항트와 中·蘇葛藤으로 인하여 東北亞政治構造에는 不均衡的인 要素가 많이 나타났다. 美·蘇대항트로 (美國, 蘇聯, 韓國) (美國, 蘇聯, 北韓)의 三角關係가, 그리고 中蘇간의 葛藤으로는 (蘇聯, 中共, 北韓), (蘇聯, 中共, 韓國)의 三角關係가 不均衡狀態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構造的 不均衡은 心理的 緊張을 초래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東北亞政治構造를 不安定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 그리고 蘇聯 및 中共의 韓國과의 關係가 敵對的인 限, 南北韓關係는 敵對的인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逆도 成立된다. 그러나 南北韓關係가 敵對的인면서 美國과 北

韓간의 關係는 改善될 可能性은 있어도 蘇聯과 韓國 그리고 中共과 韓國간의 關係가 개선될 可能性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蘇聯과 中共은 서로가 北韓의 환심을 얻기 위한 競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中蘇중 어느 한 쪽이 먼저 對南韓接近을 시도 한다면 北韓은 자연히 다른 쪽으로 기울어 지기 때문이다. (그림-6)은 이와 같은 南.北韓 立場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6) 1960年代 南北韓의 相對的 立場

네째, 北韓의 軍事 및 外交的인 獨自性 (autonomy) 은 南韓보다 더 높다. 北韓은 中.蘇의 葛藤 및 對北韓接近을 위한 競爭

關係를 이용하여 어느정도 独自の 軍事 또는 外交政策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四極模型 (美 . 蘇 .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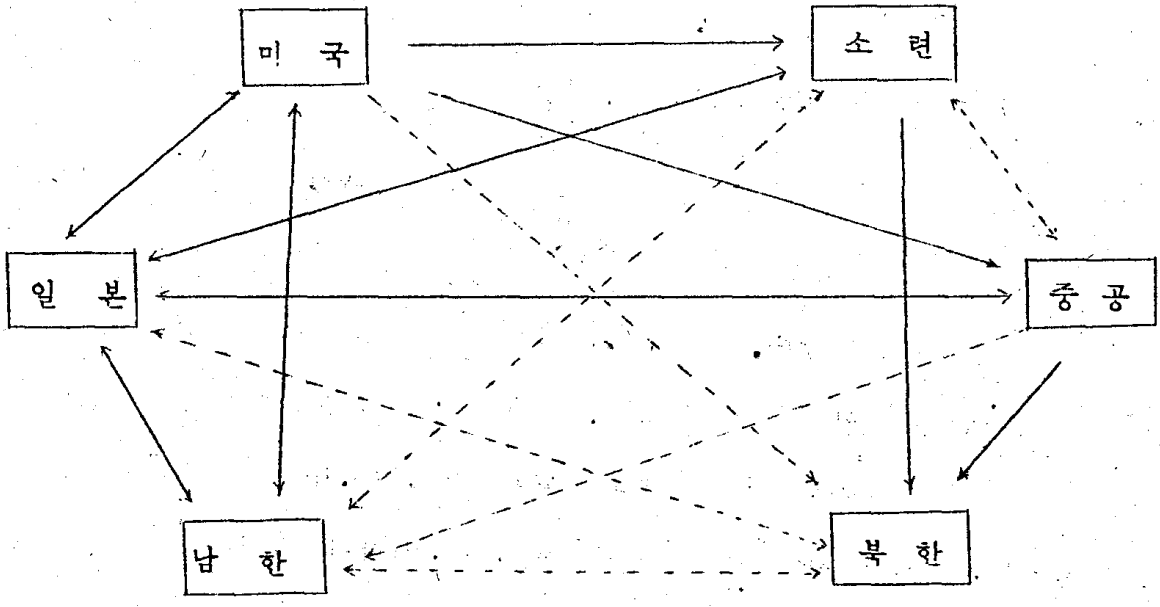
經濟大國으로서의 日本의 國際的 地位와 美國의 점진적인 아시아로부터의 離脫現象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東北亞에서의 日本의 役割을 증대시켰고, 이에 따라 東北亞政治構造는 四極體系의 性格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日本이 東北亞地域에서 갖는 가장 큰 관심은 韓半島에서의 南北關係와 美 . 蘇 . 中의 勢力均衡 維持문제이다. 韓半島에서의 安定과 美 . 蘇 . 中간의 勢力均衡은 日本의 安保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0年代의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政治構造는 美國과 日本의 北韓에 대한 태도에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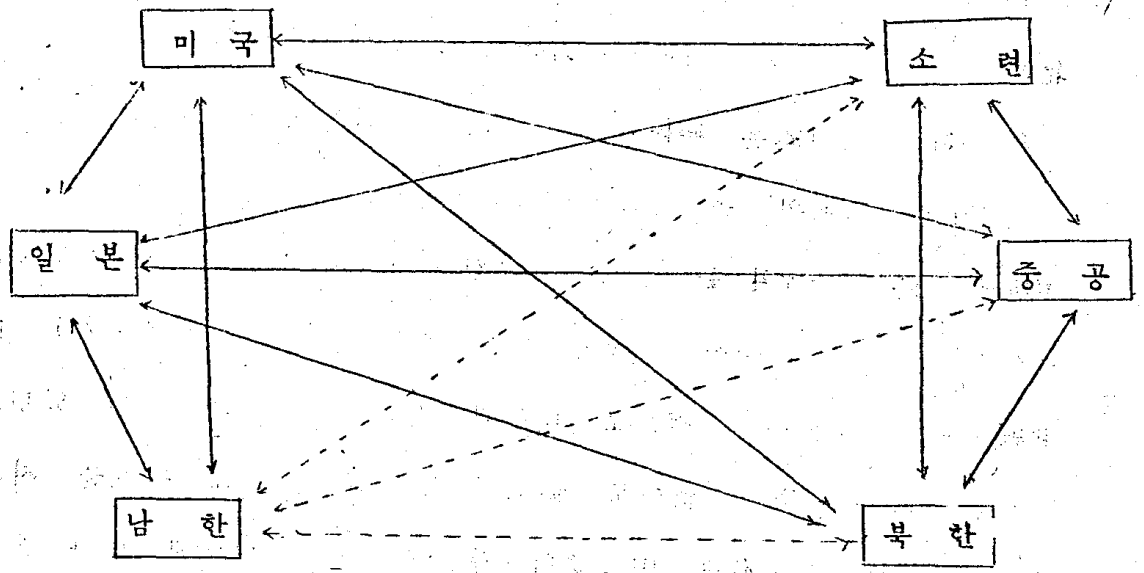
즉 美國과 日本은 韓國의 동의없이는 北韓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경우와 韓國의 동의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경우이다.

美國과 日本은 韓國의 동의 없이는 북한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북한간의 關係가 改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경우(그림-7) 南北韓關係의 改善은 전적으로 南韓과 北韓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한편 韓國의 동의 없이도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接近을 시도할 경우, 南北韓關係는 中 . 蘇의 南韓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8)은 이러한 두번째의 경우를 말해 준다.



(그림 - 7) 1970年代의 東北亞政治構造 (I)



(그림 - 8) 美·日의 對北韓關係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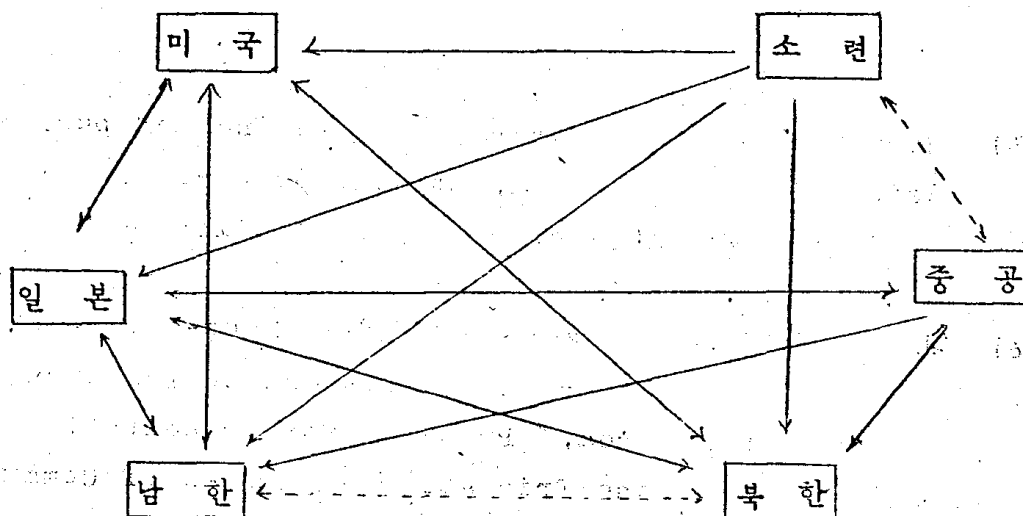
만일 美·日의 對北韓關係의 改善을 추구하는 반면에 中·蘇의 兩韓에 對한 태도가 계속 부정적이라면, 南北韓關係의 改善 展

뿔은 밝지 않다. 이런 경우는 北韓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北韓이 동의하지 않는 限, 中. 蘇가 南韓에 접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편 美. 日의 對北韓關係의 改善과 동시에 蘇. 中의 對南韓關係도 改善된다면 (그림 - 9), 南北韓關係의 樣狀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가 아마도 南北韓關係가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國際的 与件인지도 모른다. 즉, 南, 北韓에 대한 「교차승인」 (cross recognition)의 경우가 이러한 例이다.

그러나 대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限 南北韓의 交叉承認은 현실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대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대로 南北韓의 교차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中共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또한 中共이 교차승인을 인정하지 않는 限 蘇. 中. 北韓의 三角關係때문에 蘇聯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難点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의 교차승인이 中. 蘇에 의해서 이



(그림 - 9) 南北韓의 交叉承認

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韓半島의 안정뿐만 아니라 東北亞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世界政治 및 東北亞政治構造의 變化와 南北韓關係

世界政治構造가 1950年代의 兩極構造에서 1960年代以後의 東·西平和共存에 기반을 둔 多極化傾向으로 변하고 있고, 東北亞政治構造 역시 1950年代의 兩極構造, 1960年代의 三極構造, 그리고 1970年代의 四極構造로 변해오고 있으나, 南韓關係는 外樣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本質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北韓의 對南政策은 주위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外樣적인 形式은 달리하여 왔으나 南朝鮮의 解放 또는 '武力赤化統一', 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北韓의 對南政策은 주변 국제정세 보다는 南北韓간의 相對的能力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北韓의 統一戰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²⁶⁾

25) Harry G. Gelber, "Toward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in Wayne Wilcox, et al., Asia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Mass.: Winthrop, 1972), pp. 350-351.

26) 北韓의 對南戰略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Sang-Woo Rhee, "North Korean's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Prepared for presentation as a Conference on the Triangular Relations of Communist

첫째,北韓의 軍事力이 南韓보다 월등히 우세할 경우에 北韓은 武力手段을 對南戰略의 核心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1950年の 6.25南侵을 하나의 例로 들 수 있겠다.

둘째,北韓의 經濟力이 南韓을 능가할 경우,北韓은 經濟優位政 策을 추구한다. 1960年代 초반까지의 北韓의 對南戰略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당시 北韓의 經濟成長率은 여러부문에서 南韓을 능가했으며, 이에 따라 소위 3단계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이 採択되었던 것이다.

셋째, 1960年代末부터 나타난 南北韓의 相對的能力的 變化에 따라 北韓의 對南戰略은 수정되었다. 즉 北韓의 軍事力은 南韓을 능가하는 반면에 經濟力에 있어서는 南韓보다 훨씬 뒤떨어지게 있는 현상이 나타나자 北韓은 기존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과 무장침투행위를 혼합한 형태의 對南戰略을 구상한 것이다. 1963年 31명으로 편성된 무장 게릴라들의 청외대습격기도, 그리고 同年 120名の 무장게릴라들의 동해안상륙, 「푸에블로」(Pueblo)호 납치사건, 미정찰기의 격추사건등이 그 例들이다.

前頁에서 繼續

China.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June 22-24, 1977, Seoul, Korea: Yong-ok Park, "North Korea's Revolutionary Illusion and Military Adventurism," Presented at the Korean-American-Japanese Conference on Northeast Asia, July 5-6, 1977, Seoul, Korea.

네째, 1970年代初 北韓의 對南戰略은 다시 변화되는 듯 했다. 1969年の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과 1972年 닉슨 대통령의 中共방문을 계기로 北韓은 武裝계급들에게 의한 暴力手段을 일단 중지하고 대신 外交的으로는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駐韓美軍의 철수를 주장함과 동시에 南韓이 제시한 南北對話에 應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南北對話姿勢는 南北韓간의 關係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武力南侵野慾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곧 드러나게 될것이다.

1973年 北韓에 의한 일방적인 南北對話의 중단과 특히 1974年과 1975年에 發見된 「땅굴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섯째, 1970年代 중반이후 北韓의 對南戰略은 南韓과의 協商이 아니라 美國과의 直接協商을 주장하는 반면에 軍事的으로는 대남기습전략으로 변하여가는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카터」 (Carter) 美行政府에 의한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는 北韓의 군사적 모험을 더 한층 자극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北韓의 이러한 對南戰略에 비해서 南韓의 對北戰略은 한때 北進統一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1960年代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방어적이었으며, 對北抑制力 유지에 의한 現狀維持가 戰略的 核心이었다. 1970年代 초반기에 南北對話의 개최를 제시함으로써 南北韓간의 긴장도를 완화시키고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北韓의 일방적인 거부반응과 駐韓美地上軍의 철수계획으로 인하여 現時點에서는 對北抑制力의 강화에 의한 現狀維持를

추구하며, 經濟力에 있어서 北韓을 월등히 능가함으로써 北韓을 다시 南北對話의 장소로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IV. 南北韓關係 模型

1. 南北韓關係의 決定 要因

1) 內的 要因

第 2 次世界大戰 이후 世界 및 東北亞政治構造는 이미 記述한바와 같이 1950 年代의 美·蘇를 중심으로한 兩極體系, 1960 年代의 美·蘇대당트와 中·蘇葛藤, 그리고 1970 年代의 美·中關係改善, 東北亞 四強體系의 確立 등으로 變遷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韓半島를 둘러싼 四強간의 關係는 駐韓美軍撤収, 日本再武裝, 美·中共外交正常化, 日·蘇領土 분쟁 등을 중심으로 더욱 複雜해질 可能性이 큰 것이다. 이러한 주변환경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南北韓間의 敵對的 關係에는 變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惡化될 可能性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關係는 주변강대국간의 關係改善 또는 世界政治構造의 變化등의 外的인 要因보다는 주로 南韓과 北韓 자체에 關係되는 內的인 要因에 의해서 더 많이 지배되고 있다고 假定할 수 있다. 內的인 要因으로서 南北韓關係에 항상 存在하는 일정수준의 「敵對感」 또는 「理念的 葛藤」을 하나의 常數로 그리고 유동적인 南北韓의 相對的 「軍事力」 및 「經濟力」을 變數로 생각할 수 있다. 즉,

$$B_{N-S} = f \left(\frac{dM_{N-S}}{dt}, \frac{dE_{N-S}}{dt} \right)$$

$$= C + \alpha \left(\frac{dM_{n-s}}{dt} \right) + \beta \left(\frac{dE_{n-s}}{dt} \right)$$

B_{n-s} = 北韓의 南韓에 對한 行爲 (政策)

- (1) 軍事・政治・經濟的 攻勢
- (2) 先制軍事攻擊
- (3) 體制 (經濟) 優位攻勢 (南韓의 內部的 붕괴를 위한 선전, 지하 공작등 包含)
- (4) 敵對的 共存追求
- (5) 平和共存 및 關係改善追求

$\frac{dM_{n-s}}{dt}$: 北韓의 軍事力에서 南韓의 軍事力을 減한 差異의

時間에 對한 變化率

$\frac{dE_{n-s}}{dt}$: 北韓의 經濟力에서 南韓의 經濟力을 減한 差異의

時間에 對한 變化率

C : 南北韓간의 相存하는 敵對感 및 理念葛藤 (常數)

α, β : 常數 (回歸係數)

오늘날까지의 南北韓關係를 分析하여 볼때 다음과 같이 一般化시킬 수 있다.

(1) $\frac{dM_{n-s}}{dt} > 0, \frac{dE_{n-s}}{dt} < 0$ 先制軍事攻擊可能性

(2) $\frac{dM_{n-s}}{dt} < 0, \frac{dE_{n-s}}{dt} > 0$ 體制優位攻勢可能性

$$(3) \frac{dM_{n-s}}{dt} > 0, \frac{dE_{n-s}}{dt} > 0 \quad \text{政治·軍事·經濟에서의 全面攻勢}$$

可能性

$$(4) \frac{dM_{n-s}}{dt} = 0, \frac{dE_{n-s}}{dt} = 0 \quad \text{敵對의 共存 또는 先制軍事攻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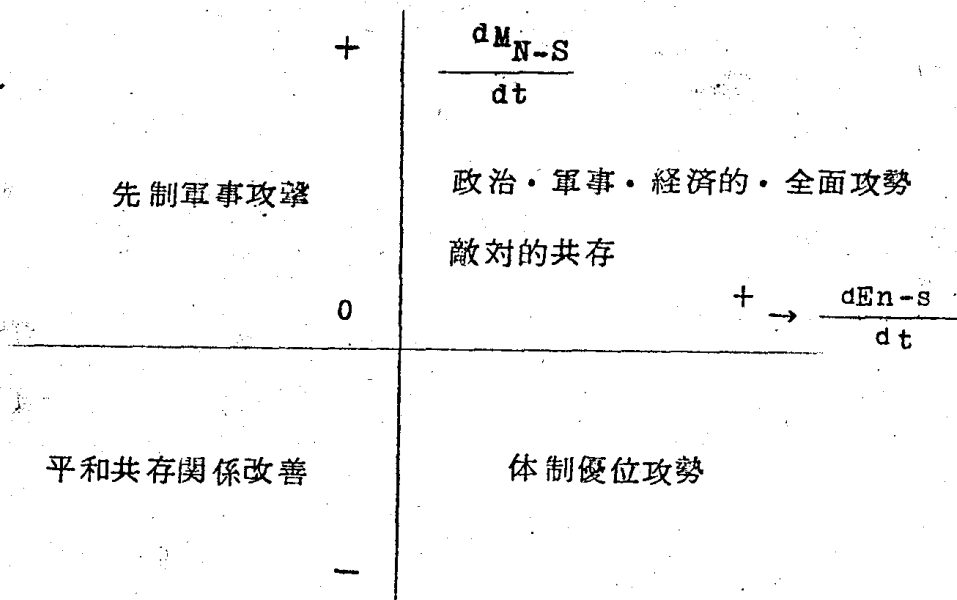
또는 體制優位攻勢 可能性

$$(5) \frac{dM_{n-s}}{dt} < 0, \frac{dE_{n-s}}{dt} < 0 \quad \text{平和共存 또는 關係改善 可能性}$$

2) 外的 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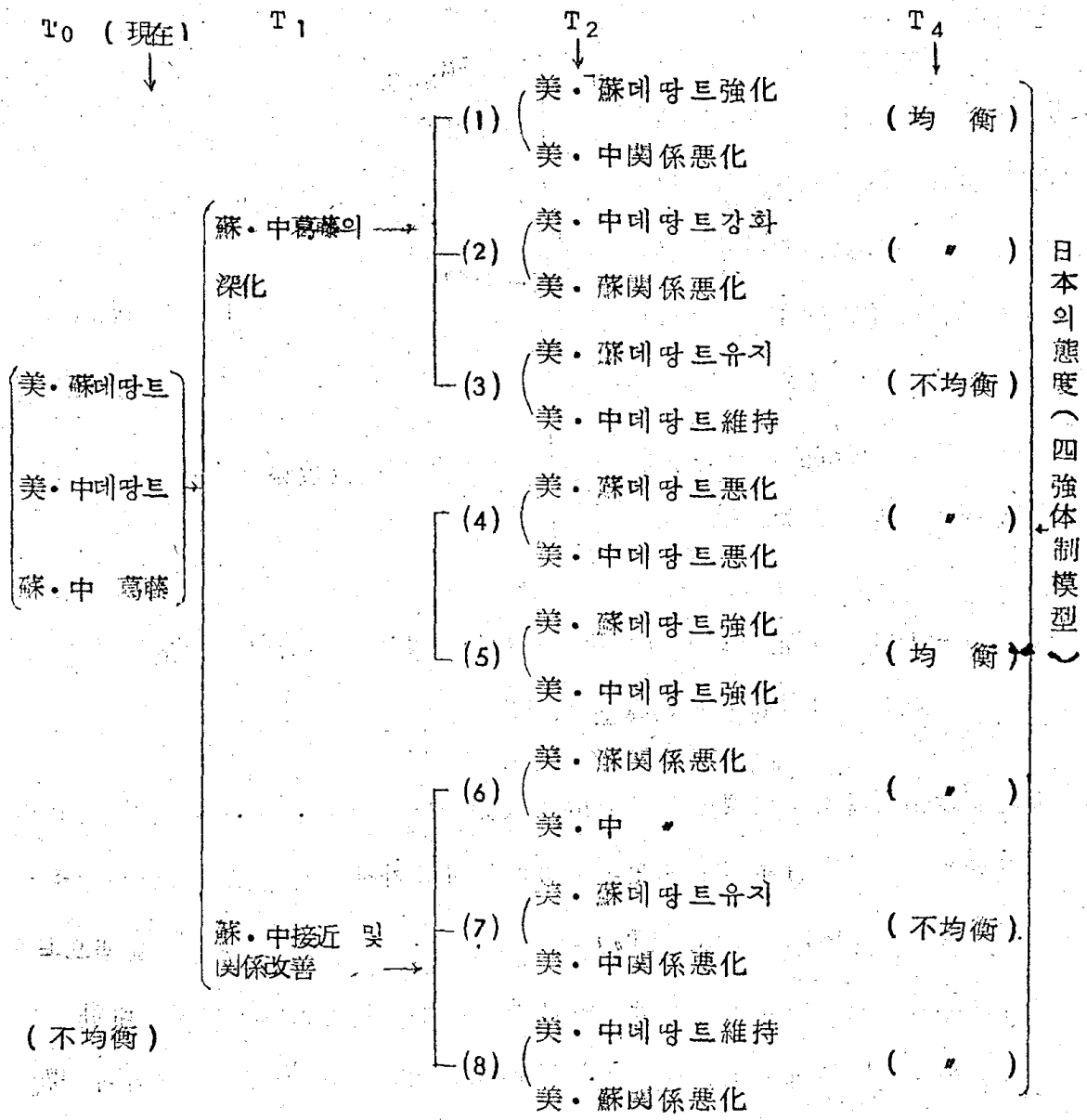
南北韓關係에 影響을 줄 수 있는 外的 要因으로서는 世界政治構造에 있어서 美·蘇·中間의 三角關係와 東北亞政治構造에 있어서 美·蘇·中·日간의 四角關係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 및 東北亞政治構造의 特性을 量的變數(quantitative variable)로서 보다는 質的變數(qualitative variable)로서 간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政治構造의 特性의 變化率을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에 어느 特定期間동안의 政治構造의 特性과 또 그 기간동안의 南北韓關係를 분석한 후에 그 政治構造의 特性에 맞는 값을 經驗的으로 찾지 않으면 안된다. 27)

註27) 質的變數(qualitative variable)의 사용에 대해서는 Potluri Rao and Roger LeRoy Miller, Applied Econometrics(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1) pp.93-96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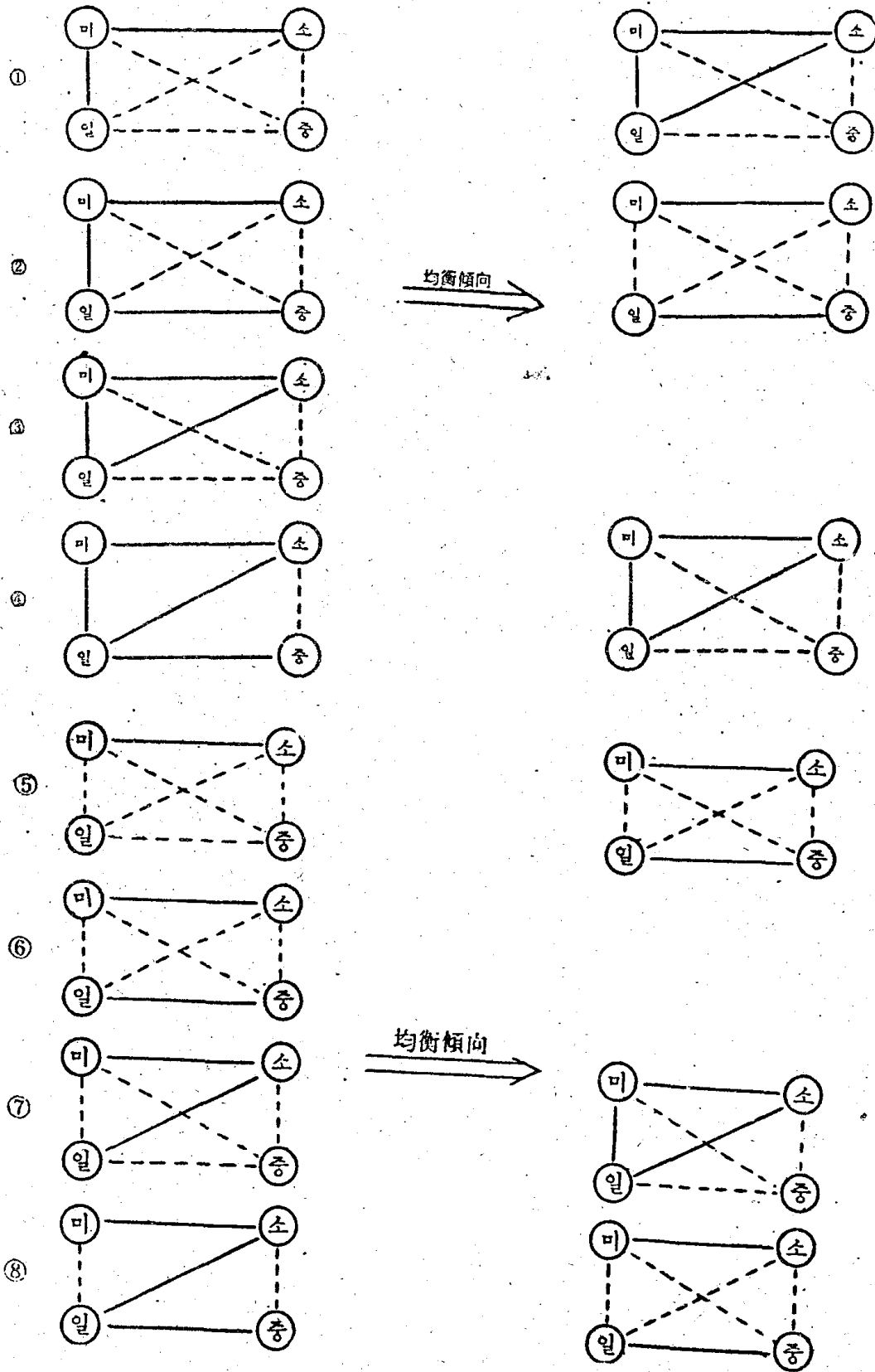
(그림 - 10) 南北韓의 相對的 軍事力 및 經濟力의 變化와 北韓의 對南行爲模型

東北亞政治構造의 特性은 世界的 次元에서의 美・蘇・中 三角關係와 이들에 對한 日本의 態度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 11)은 現在(T_0)의 美・蘇・日 三角關係를 基準으로 하여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形態의 三角關係에 대한 假想的 模型을 제시하는 것이다. T_0 에서의 三角關係에 있어서 現在의 美・蘇關係와 美・中關係는 앞으로의 蘇・中關係의 形態에 따라 변하게 될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들 三角關係(T_0)에 대해서 東北亞地域에서의 役割이 점차 向上되고 있는 日本이 어떠한 立場을 취하느냐에 따라 東北亞四強體制의 構造의 성격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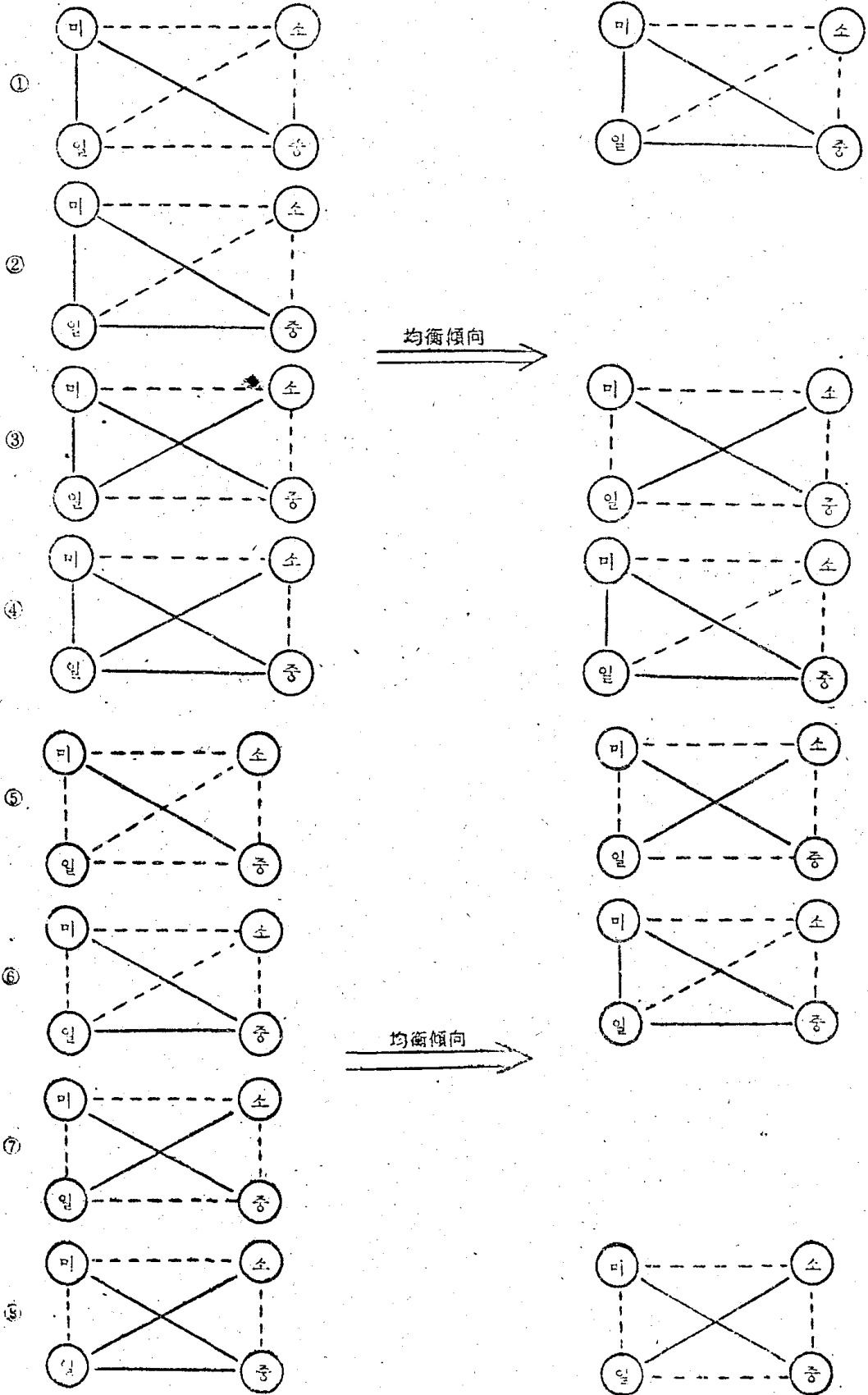


(그림 - 10) 美·蘇·中 三角關係의 假想的 模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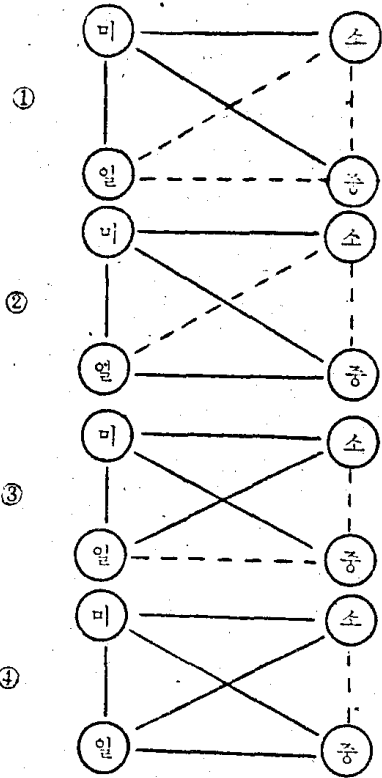
(1) 美·蘇데 팅트, 美·中葛藤 및 蘇·中葛藤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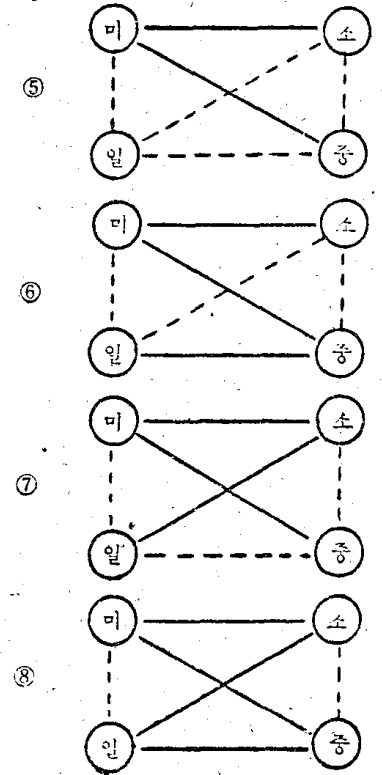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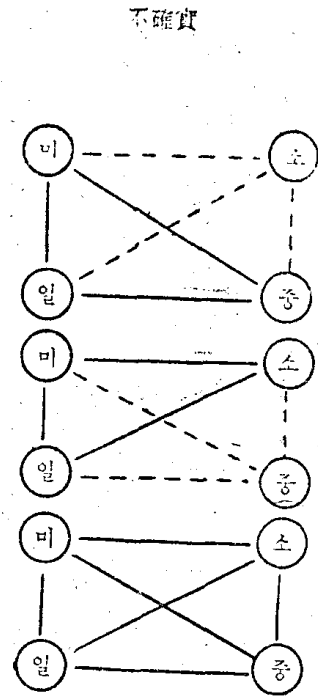
(2) 美·中에 맞트, 美·蘇 葛藤 및 蘇·中 葛藤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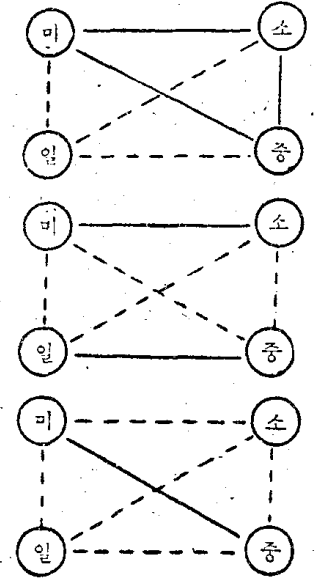
(3) 美·蘇대항트, 美·中대항트 및 蘇·中葛藤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均衡傾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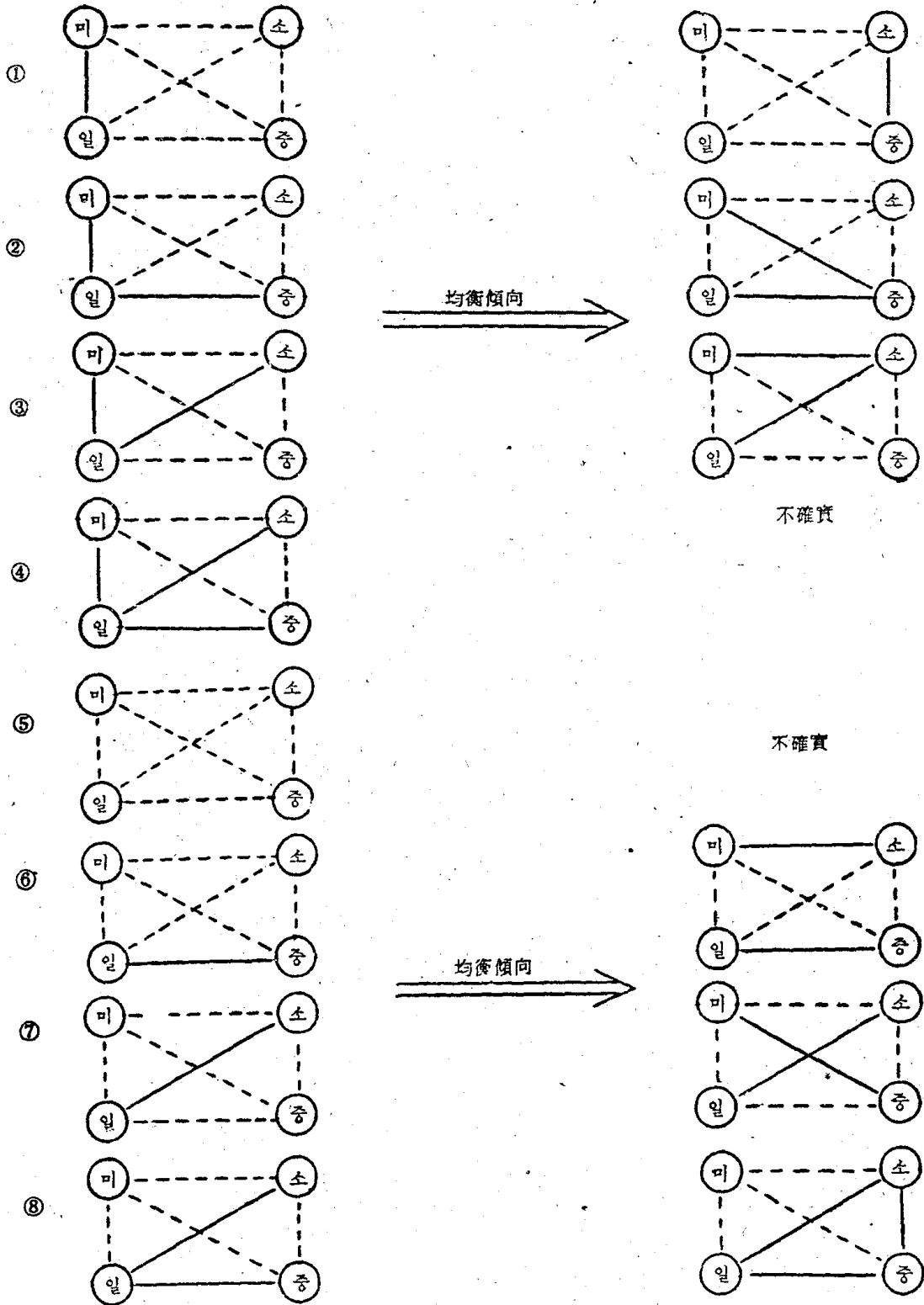


均衡傾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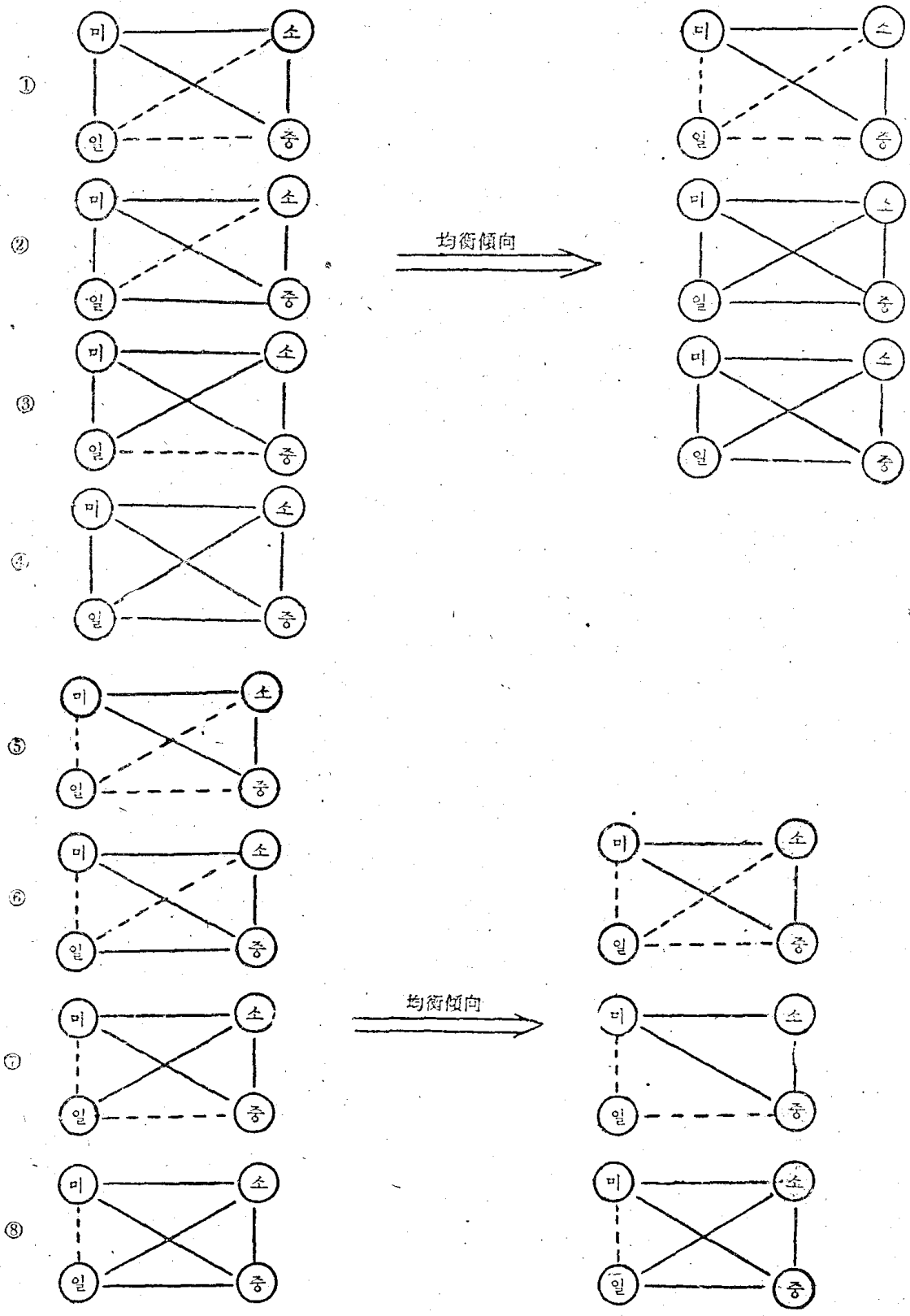


不確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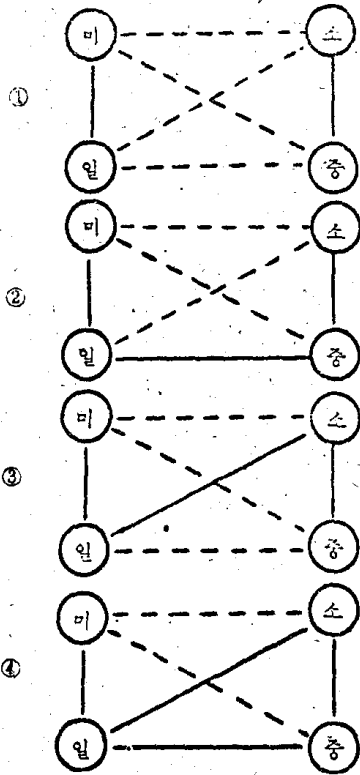
(4) 美·蘇葛藤, 美·中葛藤 및 蘇·中葛藤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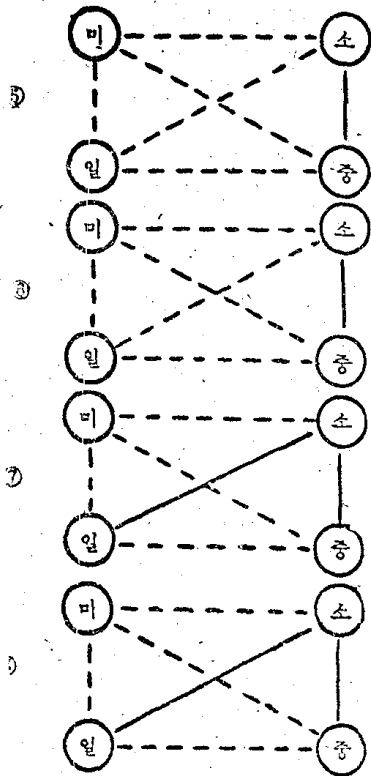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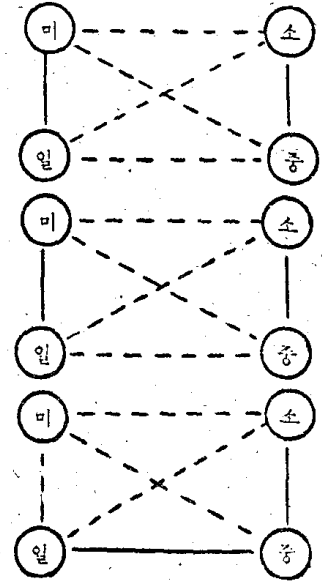
(5) 美·蘇대당트, 美·中대당트, 蘇·中대당트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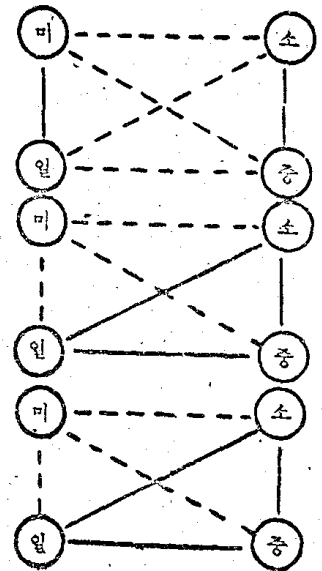
㉑) 美·蘇葛藤, 美·中葛藤 및 蘇·中葛藤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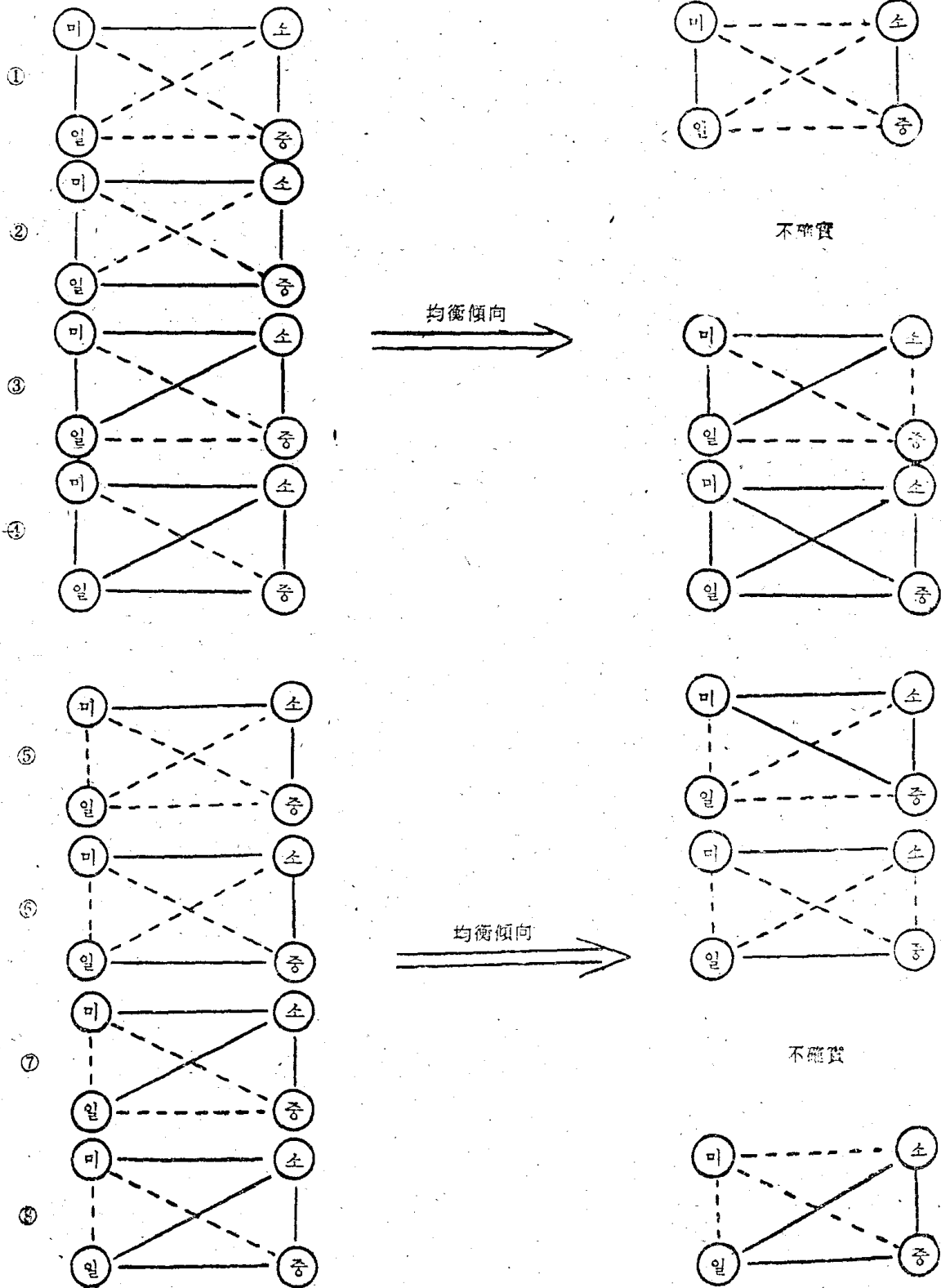
均衡傾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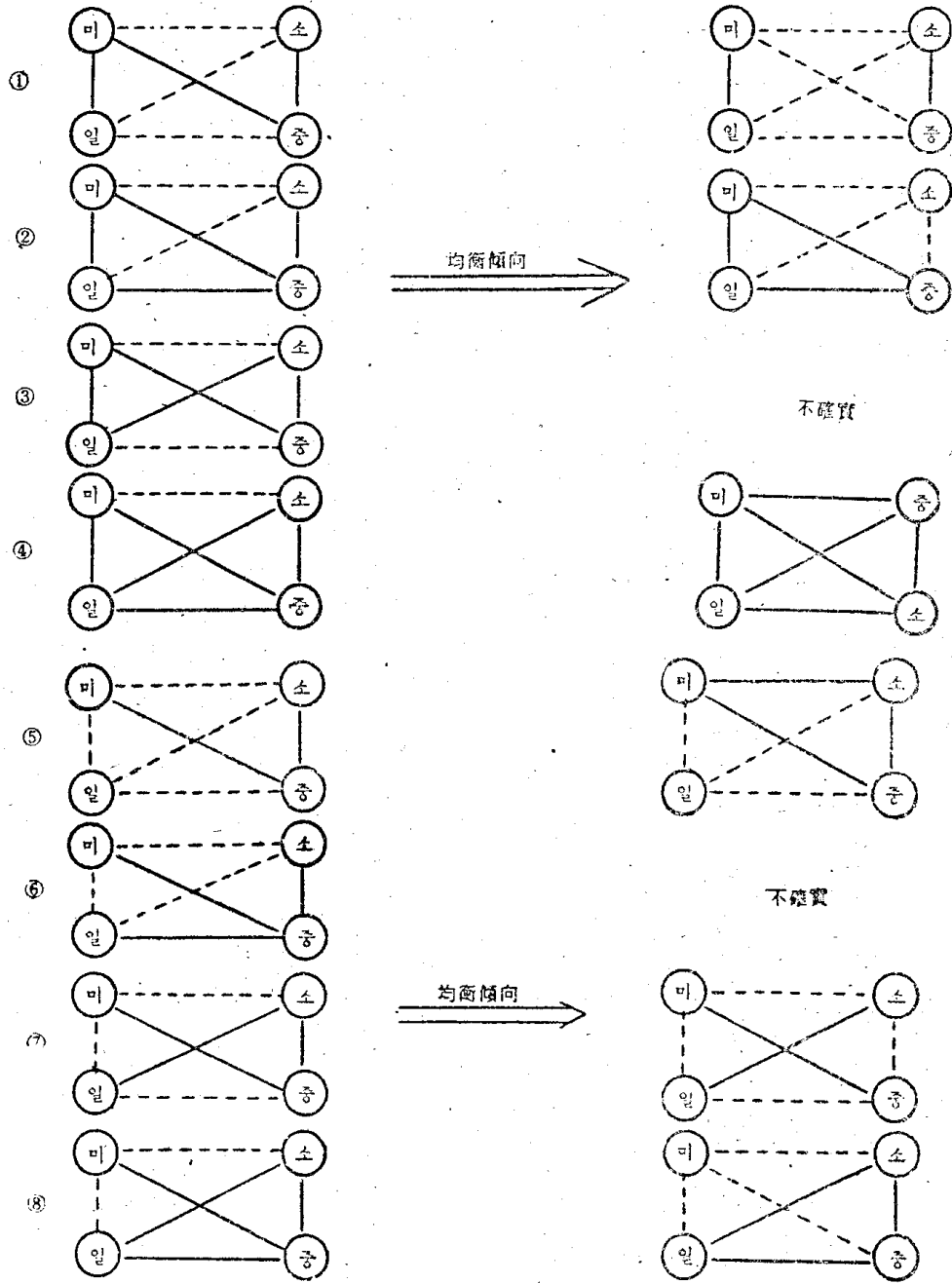
均衡傾向



(7) 美·蘇대항트, 美·中葛藤 및 蘇·中대항트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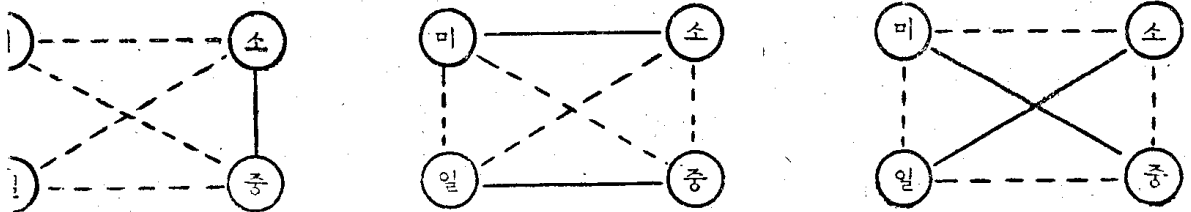
3) 美·蘇葛藤, 美·中데팡트 및 蘇·中데팡트에 대한 日本의 假想的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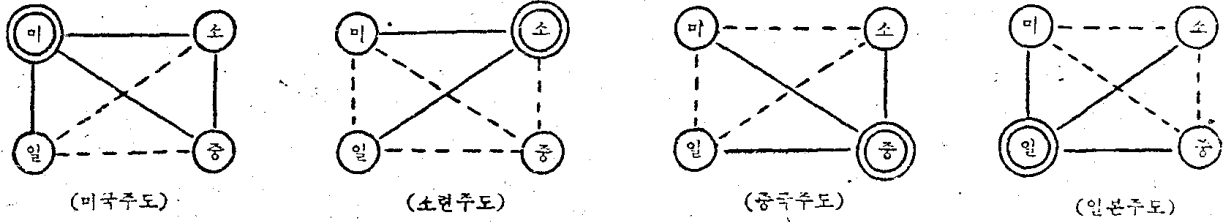
3) 東北亞 四強關係의 一般模型

에서 자세히 구분한 64가지의 四角構造는 다음 6가지 一般形態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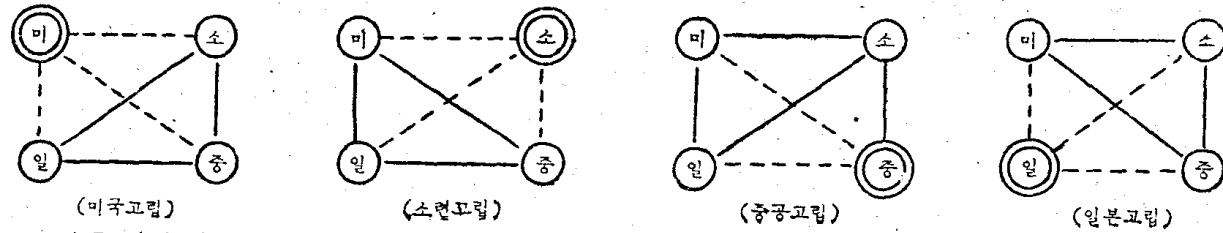
兩極型(安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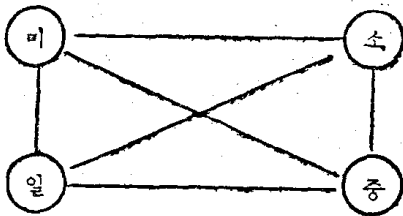
2. 一國主導型 (不安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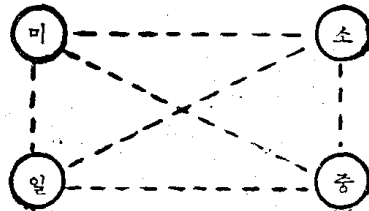
3. 一國孤立型 (安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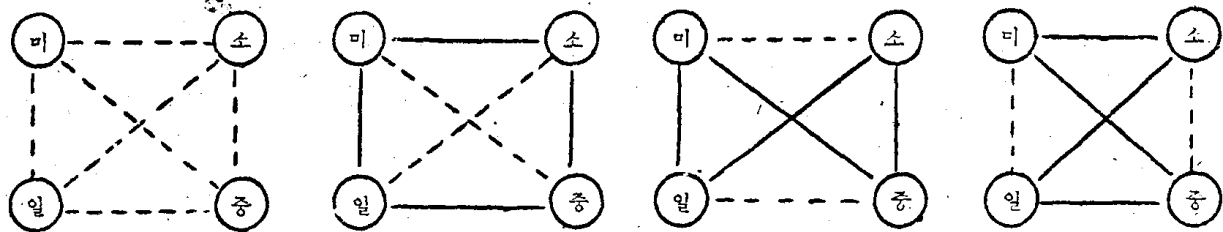
4. 完全 安定型



5. 完全 不安定型 (不安定)



6. 其他形 (不安定)



이러한 東北亞四強體制의 一般의 성격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기준을 받아 들인다면 南北韓關係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四角構造에서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구조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나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美國의 國際的 孤立은 南北韓關係에 나쁜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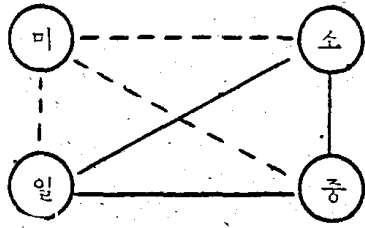
둘째, 美·日간의 葛藤은 南北韓關係에 나쁜 영향을 준다.

셋째, 蘇聯과 中共의 主導的 構造는 南北韓關係에 나쁜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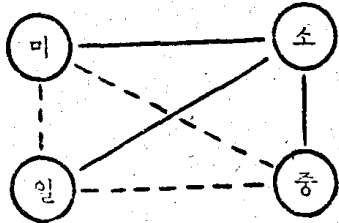
넷째, 蘇·中葛藤은 南北韓關係에 나쁜 영향을 준다.

다섯째, 東·西理念的 葛藤은 南北韓關係에 나쁜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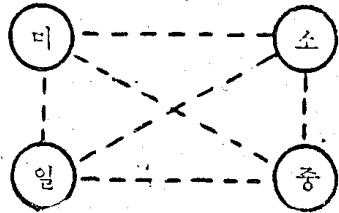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에 따라 南北韓關係에 나쁜 영향을 주는 四角構造부터 順序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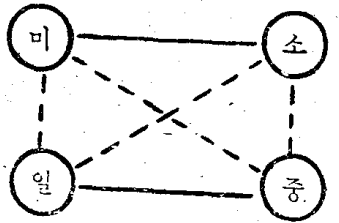
2. 蘇·中 主導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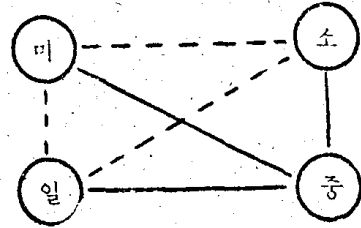
3. 完全 不安定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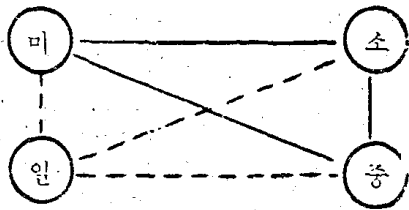
4. 兩極 構造(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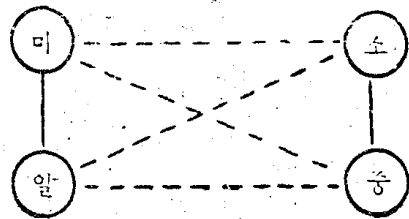
5. 日本孤立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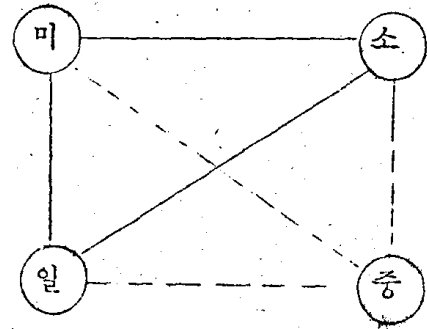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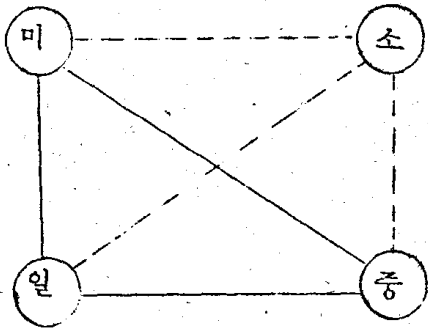
6. 兩極 構造(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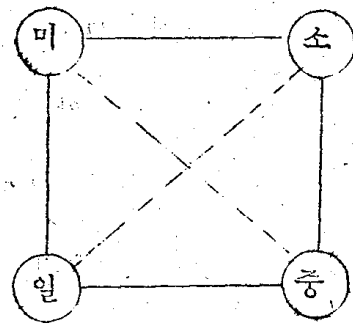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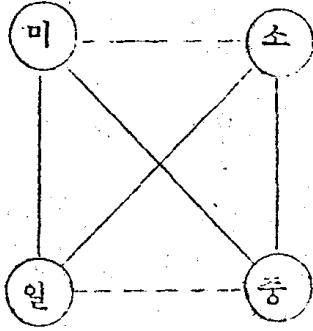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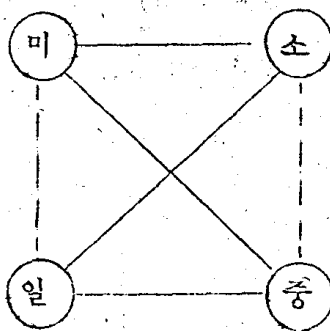
7. 日本主導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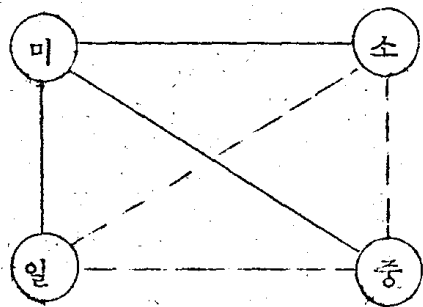
8. 蘇·中孤立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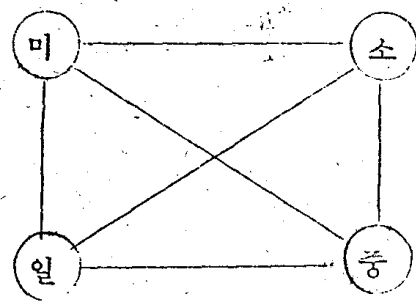
9. 不安定構造



10. 美國主導構造



11. 完全安定構造



2. 南北韓關係의 理論的 模型 및 評價

앞에서 記述한 「內的要因」과 「外的要因」을 同時에 고려하여 南北韓關係를 說明하는 理論的 模型을 定立하는 것이 본 연구의 最終 目標라 할 수 있다. 주변 國際情勢의 構造的 성격이 시간에 따라 變하여 가는 현상과 南北韓關係가 變하여 가는 현상만을 직접 比較할 때 의미있는 相關係數 (Correlation Coefficient) 를 못 얻는다 할 지라도, 주변 國際情勢를 하나의 「더미變數」(dummy variable)로서 內的要因과 동시에 고려한다면, 南北韓關係를 더욱 잘 說明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의 效果는 다분히 「더미變數」가 어떤 값을 갖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²⁸⁾

南北韓關係의 模型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_{N-S} = \left(\frac{dM_{N-S}}{dt}, \frac{dE_{N-S}}{dt}, D \right) = C + \alpha \frac{dM_{N-S}}{dt} + \beta \frac{dE_{N-S}}{dt} + \gamma D_i$$

$$\frac{dM_{N-S}}{dt} + \delta D_i \frac{dE_{N-S}}{dt}$$

$D_i (i=1, 2, \dots, n)$: 주변 國際情勢의 특정구조가 갖는 數值
(더미變數)

한편 南韓의 北韓에 대한 행위도 같은 形態의 理論的 模型에

註28) 더미變數 (Dummy variable) 에 대해서는 Ibid., pp.88-96.

의해서 說明되나, 행위의 성격은 다른 것이다.

$$\begin{aligned}
 \text{즉, } B_{S \rightarrow N} &= f \left[\frac{dM_{S-N}}{dt}, \frac{dE_{S-N}}{dt}, D \right] \\
 &= C' + \alpha' \frac{dM_{S-N}}{dt} + \beta' \frac{dE_{S-N}}{dt} + \gamma' D_i \frac{dM_{S-N}}{dt} + \\
 &\quad \delta' D_i \frac{dE_{S-N}}{dt}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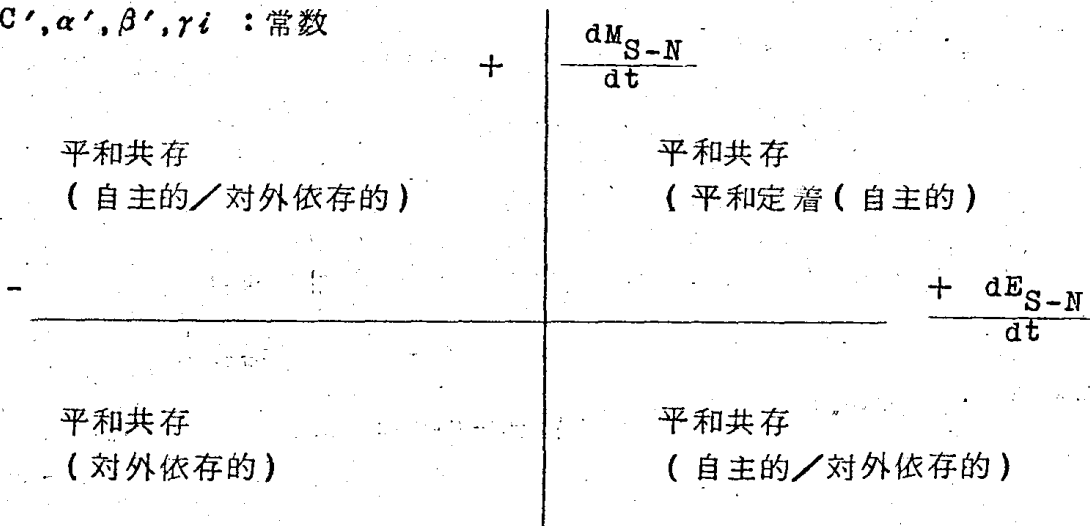
$B_{S \rightarrow N}$: 南韓의 對北韓行爲

$\frac{dE_{S-N}}{dt}$: 南韓의 軍事力에서 北韓의 軍事力을 減한 差異의 變化率

$\frac{dE_{S-N}}{dt}$: 南韓의 經濟力에서 北韓의 經濟力을 減한 差異의 變化率

$D_i (i=1, 2, \dots, n)$: 特定國際政治構造가 갖는 數值 (더미變數)

$C', \alpha', \beta', \gamma_i$: 常數



(그림 12) 南北韓의 相對的 軍事力 및 經濟力의 變化와 對北韓行爲 模型

비록 南韓의 對北韓行爲와 北韓의 對南韓行爲가 그 性格은 달리 하나, 南北韓關係의 形態는 주로 北韓의 對南韓行爲의 성격에 의하여 左右된다. 그 이유는 北韓은 攻擧的이고 南韓은 防禦的이기 때문이다.

어떤 理論的 模型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본 연구에서 定立된 南北韓關係模型도 그 限界를 갖는다.

첫째, 社會科學的 模型이란 現實世界로부터 抽象化된 것이기 때문에 그 模型에 의한 說明이란 "만약.....하다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形態(if-then type)를 갖는 하나의 一般的 傾向을 말하는 것이며, 그 模型으로부터 어떤 具體的 事實이나 現象을 導出한다거나 豫則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南北韓關係模型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外的要因인 國際政治構造의 어느 特定性格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特定構造의 性格이 갖게될 特定數值를 決定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다분히 임의적이될 우려가 많다. 이러한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假想的으로 제시한 64가지의 東北亞四強構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必要하나 이것 자체가 쉽지 않다.

셋째, 南北韓간에 이루어진 接觸回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定立된 南北韓關係의 理論模型을 客觀적으로 檢証하기가 매우 困難하다. 따라서 經驗的 資料(empirical data)에 의한 檢

証이 困難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과 같은 方法에 의해서 검증해 볼 必要가 있다.

네째, 本 模型은 주변 國際情勢가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 위한 것이지, 南北韓關係가 주변 國際情勢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V. 要約 및 結言

1. 周辺國際情勢의 變化와 南北韓關係

본 연구의 目的은 周辺國際情勢와 南北韓關係의 相互作用模型을 定立하는 것이다. 模型을 定立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제정세, 즉 「世界政治構造」와 「東北亞政治構造」가 第二次世界大戰이 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떠한 形態로 變하여 왔으며 또한 南北韓關係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必要하다. 주변국제정세의 變化와 南北韓關係의 變化와는 아무런 聯関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즉, 南北韓간의 敵對感 또는 理念的인 葛藤은 變하지 않는데 반하여, 東·西關係는 1960年代初의 美·蘇대당트를 계기로하여 많은 變化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速斷을 내리기 전에 南北韓關係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要因을 구분하여 생각할 必要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要因들을 「內的要因」과 「外的要因」으로 区分하였다. 內的要因이라 함은 南北韓의 相對的인 軍事力 및 經濟力이며 外的要因이라 함은 世界 및 東北亞政治構造의 特性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世界政治構造의 時代的 變化에 대하여 몇가지 理論的 模型—「勢力均衡模型」(balance of Power model), 「兩極模型」(bipolar model), 「多極模型」(multipolar model), 「多中心模型」(polycentric model) 등을 中心으로 하여 論하였으며, 東北亞政治構造의 變化에 대해서는 「美·蘇兩極模型」, 「美·蘇中三極模型」,

「美·蘇·中·日四極模型」을 中心으로 論하였다. 世界政治構造의 變化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惑者는 1950年代의 兩極構造에서 1960年代以後의 多極構造를 주장하며, 惑者는 1950年代의 兩極構造에서 1960年代이후의 多中心構造를 주장하며, 惑者는 1950年代나 1960年代이후나 변함없는 兩極構造라는 것을 주장한다. 한가지 분명한 事實은 1950年代의 兩極構造이며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核拏散現象과 中共의 등장으로 인하여 1950年代의 兩極構造的 性格이 顯著히 變하였다는 事實이다.

특히 美·蘇의 대당트로 인한 東·西關係의 改善과 各 勢力圈의 內的 紐帶關係가 상당히 弱化되었다는 事實과 非同盟勢力이 拏張 추세에 있다는 事實을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世界政治構造의 變化와 함께 東北亞政治構造도 變化되어 왔다. 1950年代의 美·蘇를 中心으로한 兩極構造는 1950年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蘇·中葛藤으로 美·蘇·中三極構造로 變하게 되었다. 특히 1970年代初 시작된 美·中接近으로 東北亞三極構造는 매우 不安定한 狀態로 變하였다. 또한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美國의 점차적인 脫아시아政策과 이에 따른 日本役割의 중요성은 美·蘇·中·日의 四極構造를 형성시켰으며, 日本의 美·蘇·中三角關係에 대한 態度에 따라 四極構造의 性格은 複雜하게 變하여 갈 可能性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제정세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南北韓關係의 本質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南北韓關係는 주변국제정세와는 서로 独立的인 關係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外的要因인 주변국제정세가 南北韓關係에 直接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둘사이의 相關係數를 생각해서는 안되며, 또한 주변국제정세의 특성을 計量化하기도 困難하다. 주변국제정세의 성격은 量的變數(quantitative variable)로서가 아니라 質的變數(qualitative variable)로서 간주해야 하며, 量的變數인 內的要因, 즉 南北韓의 相對的 軍事力 및 經濟力이 南北韓關係에 直接 미치는 영향의 성격은 質的變數인 外的要因, 즉, 주변국제정세의 構造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假定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변국제정세를 質的變數로 다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제정세가 갖는 다양한 構造的 성격에 관한 具體的 研究가 必要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本 연구에서는 現在의 美·蘇·中三角構造의 성격을 規定한 후에 蘇·中關係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8 가지 形態의 美·蘇·中三角構造를 기술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三角構造에 대한 日本의 態度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는 64 가지의 美·蘇·中·日四角構造의 성격을 圖形化한 후에 이것을 다시 몇가지의 一般形態로 区分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성격의 東北亞四角構造에 따라 南北韓의 相對的 軍事力 및 經濟力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假定한 것이다.

2. 南北韓關係의 模型化

본 연구에서 말하는 南北韓關係란 一般的 의미에서의 南北韓關係가 아니라 「北韓의 對南政策(또는 行爲)」 또는 「南韓의 對北政策(또는 行爲)」를 의미한다. 그러나 北韓의 對南政策은 「攻擊的」이고 南韓의 對北政策은 「防禦的」이기 때문에 南北韓關係의 일반적 의미는 北韓의 對南政策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北韓의 對南行爲模型에 중점을 두었다.

北韓의 對南政策은 南北韓의 相對的 軍事力에 따라 다섯 가지로 分類하였다.

$$i) \frac{dM_{N-S}}{dt} > 0, \quad \frac{dE_{N-S}}{dt} < 0 \quad \text{先制軍事攻擊}$$

$$ii) \frac{dM_{N-S}}{dt} < 0, \quad \frac{dE_{N-S}}{dt} > 0 \quad \text{政治 및 經濟體制優位攻勢}$$

$$iii) \frac{dM_{N-S}}{dt} > 0, \quad \frac{dE_{N-S}}{dt} > 0 \quad \text{政治, 經濟, 軍事的全面攻勢}$$

$$iv) \frac{dM_{N-S}}{dt} = 0, \quad \frac{dE_{N-S}}{dt} = 0 \quad \text{敵對的共存 또는 先制軍事攻擊}$$

또는 體制優位攻勢

$$v) \frac{dM_{N-S}}{dt} < 0, \quad \frac{dE_{N-S}}{dt} < 0 \quad \text{平和共存 또는 南北韓關係改善}$$

따라서 北韓의 對南政策은 다음과 같은 數學公式으로 模型化할 수 있다.

$$B_{N \rightarrow S} = f \left(\frac{dM_{N-S}}{dt}, \frac{dE_{N-S}}{dt} \right) = C + \alpha \frac{dM_{N-S}}{dt} + \beta \frac{dE_{N-S}}{dt}$$

$B_{N \rightarrow S}$: 北韓의 對南政策

$\frac{dM_{N-S}}{dt}$: 北韓의 軍事力에서 南韓의 軍事力을 減한 差異의 時間에 대한 變化率

$\frac{dE_{N-S}}{dt}$: 北韓의 經濟力에서 南韓의 經濟力을 減한 差異의 時間에 대한 變化率

C : 常數 (南北韓간에 相存하는 敵對感 또는 理念葛藤)

α, β : 回歸係數

南北韓關係는 南北韓의 相對的 軍事力 및 經濟力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內的要因이 주는 영향의 성격은 다시 주변국제정세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α 와 β 의 數値는 주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國際情勢의 構造的 특성이 α 와 β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미變數技法」(Dummy variable technique)을 사용할 수 있다. 즉 內的要因과 外的要因을 동시에 고려한 南北韓關係의 數學的 模型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_{N \rightarrow S} = C + \alpha \frac{dM_{N-S}}{dt} + \beta \frac{dE_{N-S}}{dt} + \gamma D_i \frac{dM_{N-S}}{dt} + \delta D_i \frac{dE_{N-S}}{dt}$$

여기서 $D_i (i=1, 2, \dots, n)$ 는 形態의 國際情勢중에서 오는 特定形態의 國際政治情勢의 構造的 특성이 갖는 數値이다. 本 研

究에서는 東北亞政治情勢를 16 개의 一般型으로 分類하였다. 例를 들어서 어느 特定形態의 國際政治構造가 南北韓關係에 주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D_i = 0$ 이며 따라서

$$B_{N \rightarrow S} = C + \alpha \frac{dM_{N-S}}{dt} + \beta \frac{dE_{N-S}}{dt} \text{ 이다.}$$

그러나 그 特定 國際政治構造가 南北韓關係에 (또는, α 와 β 에) 영향을 주며,

$D_i = 1$ 로서 간주된다면

$$\begin{aligned} B_{N-S} &= C + \alpha \frac{dM_{N-S}}{dt} + \beta \frac{dE_{N-S}}{dt} + \gamma \frac{dM_{N-S}}{dt} + \theta \frac{dE_{N-S}}{dt} \\ &= C + (\alpha + \gamma) \frac{dM_{N-S}}{dt} + (\beta + \theta) \frac{dE_{N-S}}{dt} \text{ 이다.} \end{aligned}$$

즉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α)와 (β)이지만, 영향을 줄 때는 ($\alpha + \gamma$)와 ($\beta + \theta$)인 것이다.

南韓의 對北韓政策도 같은 方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B_{S \rightarrow N} = C + \alpha' \frac{dM_{S-N}}{dt} + \beta' \frac{dE_{S-N}}{dt} + \gamma' D_i \frac{dM_{S-N}}{dt} + \theta' D_i \frac{dE_{S-N}}{dt}$$

3. 結 言

本 研究에서 定立한 南北韓關係模型은 어디까지나 假說的 模型 (hypothetical model) 이다. 이 模型의 妥當性을 證明하기 위해서

는 D_i 의 값을 決定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D_i 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形態의 國際政治構造와 各構造가 갖는 特性을 分析한 후 이러한 構造的 特性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分析해야 할 것이다.

우선 8개 形態의 美·蘇·中三角構造와 64개의 美·蘇·中·日四角構造는 論理的으로도 쉽게 導出될 수 있으나, 이 構造들이 다시 어떠한 方向으로 변할 것이며 南北韓關係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各 國家들의 政策目標, 戰略的 環境, 國家間 相互作用關係의 強弱등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必要하다. 이러한 분석은 本 研究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基準에 따라 南北韓關係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東北亞政治構造에서 좋은 영향을 줄 構造에 이르기까지 그 順序를 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D_i 의 값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論的인 側面에서 例示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周邊國際情勢가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에서의 연구가 동시에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本 研究에서 定立한 南北韓關係模型을 더욱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必要하다.

1) 美國의 戰略的 環境, 對蘇·中·日·韓半島政策目標 및 政策優先順位

i) 蘇聯의 戰略的 環境, 對美·中·日·韓半島政策目標 및 政策優先順位

ii) 中共의 戰略的 環境, 對美·蘇·日·韓半島政策目標 및 政策優先順位

iv) 日本의 戰略的 環境, 對美·蘇·中·韓半島政策目標 및 政策優先順位

이러한 4 가지 분야에서의 연구가 体系的으로 그리고 一貫性있게 이루어진 후에야 周邊國際情勢가 南北韓關係에 주는 영향을 의미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